

22일 Market Index	
코스피 9114.55 (+62.13)	코스닥 968.40 (+1.81)
금리 (연고채 3년) 3.810 (+0.026)	환율 (원/달러) 1541.05 (+14.05)

metro 경제

“스페이스X 사태
재발 방지
레버리지 상품 재점검”
02



SK하이닉스, 삼전 제치고 시총 ‘왕좌’

25년만에 대장주 교체

#“이제 반도체 대장주는 하이닉스 같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얼마나 더 벌일이 지켜볼 일이다”, “장기투자는 하이닉스로 가야 타야 하는 것 아니냐” (22일 반도체 투자자들이 모인 A커뮤니티)

SK하이닉스가 2000년부터 25년 넘게 지켜온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시가총액(우선주 제외) ‘왕좌’의 자리에 올랐다. SK하이닉스는 몇 년 전만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등과 2~5위권 경쟁을 벌여왔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인공지능(AI)발 메모리반도체 수퍼사이클(초호황)이다. 올해 개미(개인투자자) 순매수 1위에 오르며 사랑도 한 몸에 받았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올라선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하이닉스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

하닉 시총 2080조3782억 반도체 수퍼 사이클 시기 HBM 선도, 투자자 러브콜 삼전 시총 2066조6595억

2080조3782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2066조6595억원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9년 7월부터 이날까지 25년 7개월 동안 코스피 시총 1위를 지켜왔는데, 이날 장중 SK하이닉스에 대

장주 자리를 내준 셈이다. 다만 삼성전자 우선주(약 180조원)를 포함할 경우 격차는 약 180조원, 삼성전자 대비 SK하이닉스 시총 비중은 91.44% 대다.

올해 초만 해도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약 760조원, SK하이닉스는 약 493조원으로 250조원 이상 차이가 났다. 하지만 반도체 ‘수퍼 사이클’은 SK하이닉스 편이었다. 반도체 투심 확대에 SK하이닉스가 연일 급등한 반면, 삼성전자는 노조 리

스크 등이 부각되며 상대적으로 더딘 상승 흐름을 보였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임금 인상에 따른 삼성 전자 영업이익 감소 영향을 7~12% 수준으로 추산했다. 가장 먼저 등을 돌린 이들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이달 12조4000억원 어치 판것을 포함해 올해 삼성전자 주식을 64조원 어치 처분했다.

〈3면에 계속〉

/허정윤·신하은 기자

zskova@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AI시대 성공적 노후 위한 자산전략

최근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생 자산관리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00세 플러스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오는 7월 9일(목요일)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AI 시대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상속, 증여 전략, 부동산, 금융자산, 대체투자 및 미래투자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2)
- ◆ 주 제 :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 ◆ 일 시 : 7월 9일(목)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1시40분~2시)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 의 :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韓 선박 2척 호르무즈 무사 통과

해수부, 입항 예정지 제 3국 해협 안 한국 선박 2척 남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지난 10일 울산항에 도착한 유니버설 워너호. /뉴스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서너 달 정박해 있던 위치인 페르시아 만 일대를 벗어나 인도양 쪽으로 향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송선박 2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협 통항 관련 정보 제공,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항 예정지는 국내가 아닌 제 3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들 선박에 한국 국적 선원은 탑승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현재까지 선박이 위험구역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았다”며 “선원의 안전과 선사의 입장을 고려해, 선박 통항 관련 정보, 선사, 선명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박의 추가 통과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인 한국 국적 선박 수는 24척에서 22척으

로 줄었다. 한국인 선원 수도 고대·하선 등으로 인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국적 선박에 102명, 외국 선박에 33명 등 총 135명이 해협 안쪽인 페르시아 만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국적 선박이 해협 봉쇄 이후 빠져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HMM 소유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설 워너호가 지난달 20일 해협을 통과해 이달 10일 울산항에 입항했다.

이어 이달 11일 SK해운 소속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한척이 추가로 해협을 지났다. 선박의 운송주인 파키스탄 측이 이란 당국과 자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미국-이란 간 종전 합의 발표 전에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삼성·인텔 추격전?... 당분간 TSMC 독주 지속

‘추격론’ 기술격차 축소 아닌 TSMC, N3 공급 부족서 비롯 DTCO 생태계 격차 2년 이상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의 반도체 생산병목 현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일부 AI 반도체 수주를 늘려가는 가운데, 인텔 역시 미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육성 정책을 등에 업고 추격에 나서면서 파운드리 3강 구도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다만 공정 기술과 수율, 생산능력, 첨단 패키징 경쟁력에서 TSMC의 우위가 여전히 큰만큼 당분간 독주 체제가 흔들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와 인텔의 추격론이 본질적인 기술 격차 축소보다는 TSMC의 첨단 3나노(N3) 공정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공급 부족이 해소되는 2028년까지 경쟁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다. TSMC가 공정 기술과 수율, 생산능력 규모, DTCO(설계-공정 기술 공동 최적화) 생태계 등에서 경쟁사 대비 2년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는 만큼 2028~2029년 첨단 노드 시장 점유율도 9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인텔은 추격에 한창이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추론용 AI 칩 ‘그록(Grok)’과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인 AI5-AI6 생산을 수주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팹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은 지난 18일 열린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파운드리 사업부의 첨단 공정 수율

개선과 테일러 공장 가동 계획, 주요 고객사 수주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도 미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육성 정책에 힘입어 파운드리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을 통해 애플이 미국 내 반도체 설계·생산을 위해 인텔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인텔 협력 가능성도 언급해 온 만큼 미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TSMC가 오

랜 기간 축적한 생산 경험과 높은 수율, 고객 생태계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 경쟁 구도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73%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으며 삼성전자가 7%로 뒤를 이었다.

인텔은 1% 미만의 점유율과 낮은 수율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반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석희 전 SK하이닉스 사장을 파운드리 부장 수석 부사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첨단 패키징과 시스템 통합, 후공정 기술 개발 역량 강화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고객사들의 움직임이 공급망 다변화 차원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삼성전자와 인텔이 TSMC와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선단 공정 수율 안정화와 생산 경쟁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靑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 박지영 변호사 임명
▲김 총리 “선거 결과로 국정·당 지지율 동반 하락...당이 노력해야” /사진 뉴시스

▲與 “청와대 2기 참모진 전폭 지원...검찰개혁에 당 역량 쏟을 것”
▲윤상현 “선관위원장 상근직·여야 추천 내부감사위 설치해야”

▲법원, ‘징역 25년’ 박성재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합수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청구...“국힘 당원 집단가입 의혹”

이찬진 “스페이스X 사태 재발 방지… 레버리지 상품 재점검”

(금융감독원장)

증권사 해외 공모주 책임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부작용 우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작업 속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배정' 사태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과열에 대해서도 “환율 안정 효과는 크지 않고 부작용은 지나치게 커졌다”고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 '0주 배정' 검사…전문투자자 등록·위험고지 점검

이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미배정 사태와 관련해 “당연히 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국내 인수단으로 참여했지만 공모주를 한 주도 배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청약에 나선 전문투자자들도 공모가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원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주 배정이 안 돼 돈이 다 물려있는 상황이라 매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챙겨서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하고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미래에셋증권 검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등록·운영 절차, 해외투자 위험고지 적정성, 해외 주권사외의 물량배정 관련 의사소통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스페이스X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과장 광고 의혹도 점검하고 있다. 일부 운용사가 스페이스X 편입 가능

성을 부각해 투자자를 유인했는지, 지수 방법론을 위반해 스페이스X를 사전에 편입했는지가 쟁점이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과장 광고의 효과 관련해 이번 주수요일 1개 운용사에 대해서 현장 검사를 나갈 예정”이라며 “지수 방법론을 위해 ETF를 미리 편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해외 공모주 청약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증권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금융사들이 해외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지켜야 할 상황을 공

개적으로 공유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증권사 책임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IPO 공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시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금융위원회나 매우 신중한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리스크 관리 방안 모색

이 원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외국인 투자 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환율 효과는 많지 않고 부작용은 너무 커진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드러누웠어야 했다 후회가 많고 개인적으로 반성 중이다”라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단기 매매가 집중될 경우 개인투자자 손실 위험이 커진다.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가 92%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리스크가 크고 가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연속 하락장 때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수의

몰이 -37%까지 갔다”고 경고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회전율이 심할 때는 200%대까지 갔다”며 “회전을 130%일 때 증권사 매매 수수료가 5조~10조원으로 추산되는데, 몸통 시총의 거의 40~70%를 수수료로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투자자들이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미수신용거래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 위험고지 체계도 함께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원장도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시점과 관련해 “정부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된 최종안은 보고됐다”며 “KB금융지주가 숏리스트 작업을 하는 7월 3일 전에는 발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KB금융은 현재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회장 승계 절차와 사외이사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등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통해 금융권 최고 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엔화값 40년만에 최저… 원화가치 흔들리나

엔·달러 환율, 증가 평균 157.98엔
원화 동조 경향… 약세 전망 커져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0엔을 목전에 두며 ‘플라자합의’ 이후 약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금리차가 여전히 여전하고, 일본에서 돈을 빌려 해외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수요도 지속되고 있어서다. 원화값은 엔화값과 동조하는 경향이 큰 만큼 엔화값 하락이 원화값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투자정보사이트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뉴욕 외환시장 엔·달러 환율은 지난 19일 달러당 161.28엔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 엔·달러 환율의 증가 평균도 달러당 160.32엔을 기록해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60엔 선을 넘었다.

특히 올해 들어 엔·달러 환율의 증가 평균은 달러당 157.98엔에 달했다. 이는 ‘초엔저’가 한창이었던 2024년의 달러당 151.48엔보다 약 4.2%나 높은 수치로 ‘플라자합의’의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 1986년 이후 최고치(엔화값 최저)다.

◆日 금리인상에도 ‘엔화 약세’ 지속

미·일 기준금리차가 5.5%p까지 벌어지면서 엔화값이 급락하자 일본은행은 지난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의 종료 선언을 선포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했다. 당시 달러당 160엔 선을 위협하던 엔·달러 환율도 달러당 140엔 중반까지 하락(엔화값 상승)했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의 종료 선언 이후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했다. 일본은행은 이달 16일까지 총 4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최근의 현재 일본은행의 정책금리(기준금리)는 1.0%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인 3.75%와 비교해 2.75%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와 달러화를 취급하고 있다. /뉴스1

낮다. 이는 코로나19 직후의 5.5%p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의 엔·달러 환율은 오히려 심리적 저항선인 160엔을 넘기며 엔화 약세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엔화의 약세가 심화한 것은 연준이 지난해 말까지 이어졌던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중단하고 기준금리 재인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엔 캐리 트레이드’도 엔화값이 약세에 놓인 요인이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일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엔화를 팔고 타국 통화를 매수하는 과정은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중동사태’ 종료 전망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는 ‘엔 캐리 트레이드’ 수요를 빠르게 늘렸다.

엔화 약세는 원화 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엔화는 원화, 홍콩달러, 대만달러 등 동아시아 통화와 한 권역으로 묶여 취급되며, 한국은 일본과 수출 및 사업 구조가 유사한 만큼 원화값은 다른 통화보다 엔화값을 추종하는 경향이 특히 크다. 최근

원화 약세가 빠르게 심화하는 과정에서 엔화 약세의 영향도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미·일 기준금리차가 여전히 높아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여전히 높고, 단기간 내에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가 좁혀질 가능성도 크지 않아서다.

투자회사 노무라증권의 마쓰자와 나카 수석전략가는 “일본은행이 긴축에 나서더라도 미국 국제 수익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엔캐리 트레이드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전략이다”라며 “다가이치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도 일본은행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일본의 성장률이 소폭 호전됐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태인 만큼, 엔·달러 환율이 단기간 내 하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한국전력,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연료비조정단가 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요인 최소화·전력비 절감 최선”

한국전력이 올여름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13분기 연속으로 동결 기조를 이어나가게 됐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가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된다. 전기요금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단가는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3분기 연속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하게 됐다.

전기요금은 크게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석유·가스 수입 가격의 흐름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항목이 바로 ‘연료비조정단가’다.

최근 3개월간의 무역 통계를 바탕으로 산정된 3분기 실적연료비는 기존 기준연료비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력을 생산할 때 투입된 연료량 등을 환산해 계산한 결과, 이론적으로는 kWh당 약 3.4원을 내려야 하는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최종 동결을 선택했다. 한전이 올해 1분기 기준 매출액 24조 3985억 원, 영업이익 3조 7842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적 부채가 206조 원, 차입금이 128조 원에 달하는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을 인하하기에는 구조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분석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동결 발표는 연료비 조정요금에 한정된 것이며, 나머지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정해진바가 없다”며 “인상요인 최소화와 전력비 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미세공정 넘어 첨단패키징… 승부처 이동

>> 1면 ‘삼성·인텔 추격전?’서 계속

더욱이 승부처가 단순 미세공정 경쟁에서 첨단 패키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TSMC는 CoWoS·SoIC·CoPoS 등 첨단 패키징 기술을 통해 GPU당 탑재 가능한 HBM 용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AI 반도체 경쟁의 핵심이 GPU 출하량보다 GPU당 HBM 탑재량 증가로 이동하면서, TSMC의 우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파운드리 사업은 막대한 설비 투자와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라 미국 정부의 중장기적인 지원 없이는 유지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당장 TSMC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TSMC는 오랜 기간 축적한 생산 경험과 높은 수율, 고객 생태계 등에서 강점이 있어 단기간에 경쟁 구도가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SK하이닉스 전시 부스를 찾은 최태원 회장(왼쪽)과 젠슨 황 CEO.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전경.

/SK하이닉스 뉴스룸

엔비디아와 HBM 우위 굳혔다... ‘고객 다변화’ 다음 승부처

HBM 선점 앞세워 기업가치 급등 엔비디아·TSMC 동맹 ‘루빈’까지 iHBM·eSSD로 성장동력 확대 ADR 상장 기대에 재평가 탄력 매출 편중·대만 리스크는 과제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르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메모리 업황 침체와 적자 우려 속에 고전했던 기업이 이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를 단순한 메모리 제조업체가 아니라 AI 혁명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바라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사상 처음 삼성전자 시총을 뛰어넘었다. 이날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KRX종가 기준 2080조3782억원으로 삼성전자(2066조6595억원)를 넘어 시총 1위에 올랐다. 다만 삼성전자우(약 180

조원)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약 179조 7311조원 가량 격차가 존재한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시가총액을 합산한 삼성전자의 총 시가총액은 2260조1093억원으로,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91.44% 수준이다.

SK하이닉스의 대도약에는 폭발적인 AI 산업 성장과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자리 잡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무엇보다 AI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과감한 기술 투자를 단행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기술 개발과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 공급업체 역할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AI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를 누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날카로운 창’에 비유한다. SK하이닉스가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무기인 메모리 기술

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가 최근 HBM5를 겨냥해 HBM 패키지에 일체형 냉각 요소 ‘ICE’를 넣어 발열을 획기적으로 낮춘 iHBM 기술을 공개한 것도 반도체 리더십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함이다. AI 서버의 가장 큰 난제로 꼽히는 발열 문제를 30% 이상 개선하면서 차세대 HBM5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이어갈 가능성을 높였다.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은 단순히 기술에 그치지 않는다. 엔비디아와 TSMC를 연결하는 강력한 삼각 동맹 역시 핵심 자산이다.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구축한 생태계 속에서 SK하이닉스는 사실상 필수 공급망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컴퓨텍스를 통해 더욱 공고해진 협력 관계는 향후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인 ‘루빈(Rubin)’에서도 높은 점유율 유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SK하이닉스의 또다른 성장 동력은 기

업용 SSD(eSSD) 사업이다. 그동안 시장은 SK하이닉스를 HBM 중심 기업으로 평가해 왔지만 최근에는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저장장치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장장치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으며, 고마진 제품인 eSSD가 새로운 캐시 카우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HBM 의존도를 완화하고 실적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예탁증서(ADR)의 뉴욕증시 상장을 앞에 두고 있다는 점도 현재의 주가 고공행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ADR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안고 있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부 해소하며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부담이 되고 있다. 엔비디

아가 투자 전략을 바꾸거나 AI 인프라 투자 둔화가 발생할 경우 실적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SK하이닉스가 매출 상당부분을 AI 서버 시장과 엔비디아 생태계에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다. SK하이닉스는 자체 파운드리를 보유하지 않아 최첨단 패키징 과정에서 TSMC의 CoWoS 공정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나 자연재해,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HBM 성공을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확장하고 엔비디아 중심 구조를 넘어 고객 다변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eSSD 등 신규 사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면 SK하이닉스는 일시적 1위가 아닌 글로벌 AI 반도체 시대의 장기 승자로 자리매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성윤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1면 ‘SK하이닉스, 삼전...’서 계속

‘500만닉스’ 기대감... 삼성전자 추월 땐 ‘거품 경고등’

노무라, 500만원·미래에셋, 380만원 한화증권, 목표가 430만원으로 상향 HBM 수요·장기공급계약 확대 기대 ADR 상장 기대도 재평가 요인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가 430만원까지 치솟았다. 반도체 수퍼사이클 기대감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증권가에서는 잇따라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코스피 버블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시점이 ‘코스피 거품이 꺼지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2일 한화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163만원에서 43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국내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 증권사 박준영 연구원은 “한국 메모리 산업은 장기공급계약(LTA), 고대역폭메모리(HBM)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감익기의 실적 변동성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SK하이닉스의 LTA의 비중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의 마



ChatGPT로 생성한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증권가’ 관련 이미지.

진율이 감익기에도 담보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목표로 하고 있는 ADR의 상장과 함께 미국 증시 내에서 유사 기업들과 비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의 압도적인 밸류에이션 매력과 동종 업체들 대비 가지는 기술력의 우위 등을 감안했을 때, ADR은 동사가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미래에셋증권도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기존 32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높여 잡았다. 세계 메모리 업종 전반의 재

평가와 장기공급계약 확대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내년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와 고객 다변화가 전망된다”며 “알파벳의 신규 텐서처리장치(TPU) v8은 추론용이 학습용보다 높은 용량을 탑재하기 시작했고, HBM4를 탑재한 엔비디아 루빈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증권사들도 장밋빛 전망을 외친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정창원 노무라증권 아시아 리서치 공

동 대표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2026년 한국 경제 및 주식시장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올해 메모리 월별 매출액이 수직 상승 중”이라며 “AI가 이끄는 메모리 수요는 향후 5년간 수만 배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업의 투자 부족 우려는 이미 시장에서 사라졌다”면서 “이제는 메모리 수요가 계속 될 것이라는 기초조건(펀더멘털)에 대한 믿음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순간이 강세장 종료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경우엔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한 지금의 강세장이 끝나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2000년 테크 버블(거품)의 종료는 주가 과열로 시가총액 1위 기업만 바뀐 상황에서 나타났다”고 했다. 실제 2000년 미국의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가 과도한 실적 기대감에 시총 1위에 오른 뒤 급락하며 증시의 버블 붕괴로 이어졌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반도체 레버리지 ETF ‘불장’

투자은행 한 관계자는 “AI 시대에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첨단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직원 처우에 과도한 재원을 사용하다가 투자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외국계 투자자들 사이에 남아 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선도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모바일·가전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을 보유하고 있어 반도체 업황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분산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SK하이닉스를 ‘왕좌’에 올려 놓은 이들은 개미(개인투자자)이다. 지난달 2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2배 배팅할 수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나온 이후 투자자 관심과 자금도 SK하이닉스에 더 많이 몰리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1~22일) ETF 수익률 1위는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47.50%)가 차지했다.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47.18%), ‘SOL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45.97%),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44.80%), ‘RIS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43.57%)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허정윤·신하은기자 godhe@

저효율 자산 과감히 정리하고, 스페셜티로 실적 턴어라운드

⑨ 롯데그룹

롯데지주

롯데그룹이 과거의 외형 확장 중심 기조를 과감히 내려놓고 단행한 고강도 체질 개선 작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불과 2년 전 금융권을 중심으로 퍼졌던 유동성 위기 루머와 시장의 차가운 시선을 완벽히 극복하고,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체질 개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롯데그룹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8조 6000억원, 영업이익 7876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4% 신장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81% 급증하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외형적 확장보다 내실 경영과 현금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

으로 둔 고강도 포트폴리오 재편의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롯데지주는 최근 개최한 투자설명회에서 쇼핑, 건설, 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 재무 책임자들과 함께 이 같은 경영 성과와 향후 사업 구조 개편 방향성을 공유하며 시장과의 신뢰 회복에 나섰다.

그룹의 중심축인 유통과 식품, 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시그니얼 서울에서 열린 2026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스키·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밝게 웃고 있다. /뉴시스

텔 부문은 본연의 경쟁력을 회복하며 실적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롯데쇼핑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52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호실적을 냈다. 백화점 사업부가 핵심 점포의 콘텐츠 중심 마케팅으로 외국인 관광객 소비를 흡수해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었고,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해외 사업도 힘을 보탤었다. 특히 베트남의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현지 리테일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누적 방문객 3000만 명을 돌파, 분기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롯데마트 역시 국내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현지 직영 매장을 중심으로 수익성을 제고했다.

식품 계열사의 해외 법인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롯데웰푸드는 인도와 카자흐스탄 등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넓히며 1분기 영업이익

**1분기 매출 18.6조, 영업이익 7876억
전년비 매출 4%, 영업이익 181% 늘어
내실경영·현금 유동성 확보 최우선**

**롯데쇼핑, 영업이익 2529억... 71%↑
롯데웰푸드·칠성음료, 해외 성과
호텔롯데, 외국인·면세 등으로 안정
롯데케미칼, 10분기 만에 흑자
제품 마진 개선·시차 효과 작용**

118% 증가한 358억원을 기록했고, 전체 매출 중 해외 비중을 32%까지 끌어올렸다. 흑자 전환에 성공한 필리핀 법인을 필두로 한 롯데칠성음료 역시 글로벌 부문 영업이익이 급증하며 전체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아울러 호텔롯데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면세 사업 부문의 구조조정 효과로 83% 늘어난 74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으며, 롯데건설 또한 PF 우발채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50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안정 궤도에 올랐다.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장기 적자에 빠져 있던 화학 부문의 반등이다. 롯데케미칼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원료 조달 최적화와 공장 가동률 조정을 통해 10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서며 7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중동 분쟁에 따른 제품 마진 개선과 시차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롯데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대산과 여수공장의 구조 개편을 포함해 기초화학 비중을 낮추는 대신 스페셜티 소재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는 고강도 준비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러한 실적 턴어라운드의 배경에는 저효율 자산을 과감히 정리하는 '군살 빼기' 작업이 자리 잡고 있다. 롯데는 롯데웰푸드 증평공장과 롯데케미칼 파키스탄 법인 등을 매각하며 유동성을 확보해 왔으며, 향후 롯데렌탈 지분 매각 검토 등 비핵심 자산 정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유휴 부지의 경우 단순 매각 방식에서 탈피해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한 자체 부동산 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철저하게 상각 전 영업이익 범위 내에서 투자를 집행하는 등 현금 흐름 중심의 재무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확보한 재원은 바이오와 첨단 소재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투입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말 인천 송

롯데웰푸드 증평공장 등 매각
롯데렌탈 지분 매각도 검토 예정
확보 재원, 미래성장동력 투입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 준공 앞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전기차서
AI 데이터센터용으로 생산축 전환

조직운영, '수시 인사' 기조 정착
그룹 전반 인력 효율화 작업 확산
3단계 구조서 중간 조직 HQ 폐지
의사결정 단계 축소, 소통 속도 ↑

도캠퍼스 제1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 시러큐스 공장과 연계한 이원화 생산 체계를 통해 글로벌 위탁개발생산 시장을 공략 중이다. 이미 글로벌 및 영국 바이오 기업 등과 잇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역시 기존 전기차 배터리용 전지박 중심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회로박과 에너지저장장치 등 고부가 시장으로 생산 축을 전환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철저한 성과주의와 신상필벌에 기반한 혁신이 진행 중이다. 연말 정기 인사에 얽매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경영진을 교체하는 '수시 인사' 기조가 정착됐다. 최근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신임 수장으로 1970년대생 외부 전략통인 김중윤 부사장을 내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구글과 맥킨지, 야놀자 등을 거친 글로벌 플랫폼 전문가를 영입해 오프라인 중심 가전 유통 채널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3월에도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에 외부 컨설팅 출신 김대일 대표를 선임한 바 있으며, 백화점 사업부에는 내부 출신 최연소 대표를 발탁하는 등 1970년대생 리더들을 전면 배치해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동시에 그룹 전반의 인력 효율화 작업도 체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인 롯데온이 근속 3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며, 마트·슈퍼 사업부와 롯데면세점 등도 조직 슬림화에 나섰다. 특히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리던 우량 자산관리 계열사인 롯데물산까지 창립 이래 첫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계열사의 재무적 지원 부담을 줄이고 신규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면 재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거시경제 둔화 속에서 고정비 부담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다.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배구조 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롯데는 올해를 기점으로 기존 '계열사-사업군-지주'로 이어지던 3단계 구조에서 중간 조직인 HQ를 과감히 폐지했다.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해 지주와 각 계열사 간 소통 속도를 높이고, 급변하는 거시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책임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롯데 측은 "효율적 투자 집행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① 송도 바이오캠퍼스 투지도
②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익산공장
③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 4월 23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찾아 올해 첫 해외 현장경영을 펼쳤다. /롯데지주



#1 김영규 님의 이야기

“평소에도 신경 쓸 게 많은데..
모바일과 인터넷 등을 한 번에 가입할 순 없을까요?”

고객의 이야기로 ‘가장 쉽게’ 바꿔드립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의 이야기로
요금제의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복잡한 요금제는 알아보기 쉽게,
혜택은 나이에 맞춰 알아서 제공

통신의 기본, 요금부터 심플하게
모바일·인터넷·결합, ‘올인원’ 상품으로
가장 쉬운 통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통신을 심플하게

Simply. U+

자세한 내용은 U+공식온라인스토어 및 약관 참고

올인원 상품은 6개월 한정 프로모션 상품 (프로모션 기간: 2026년 6월 1일 ~ 2026년 11월 30일)



전당대회 앞두고 민주당 분열 조짐... 당내 자성론 고개

당권 경쟁 과열되며 갈등 심화
“계파 갈등 아닌 ‘통합 전대’ 돼야”
이광재·박지원·우원식 한목소리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권 경쟁이 과열되면서 당정 지지율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던 민주당이 내부 경쟁으로 흔들리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모습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당내 갈등을 꼽으며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 되겠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이 당내 갈등에 우려를 표하자, 이후 중진의원들이 연이어 자제를 요청하는 모양새다.

이번 6·3 재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복귀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황명선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분열과 갈등에 큰 우려를 표한다”면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민주당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반드시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정책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며 “당이 하나 되는 통합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줄 세우기 전당대회 시대를 청산하자.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짝을 지어 싸우는 구조를 깨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국회부의장도 이날 SNS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조탈래유’, ‘새똥 돼주길’ 등 상대를 비하하는 자극적인 멸칭이 확산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정치는 말로 시작하고 말로 끝나는데, 혐오의 언어가 정치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있다. 비하와 조롱, 혐오는 당의 단합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남 부의장은 “(전당대회는) 멸칭보다는 비전과 정책이, 분열보다는 통합의 장이 돼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멸칭을 중단하고 비전과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자”며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 창출에 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한 방송에서 “전당대회 분위기에 대해 저는 굉장히 염려한다. 제발 싸우지 말자”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에서) ‘문조탈래유’ 등 별 게 다 나오지 않느냐.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민주당이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전당대회라고 하지만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 서민들 경제 대책을 세우고 개혁을 완료해야 하는데 당에서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라고 쓴소리를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전날(21일) 자신의 SNS에 “이번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이 없다”면서 “평생을 민주당의 당인으로, 현장에서 ‘을’과 함께 걸어온 사람으로서 당의 분열과 반목을 차마 더는 지켜보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갈등이 심화되자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우 전 의장은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상대를 조롱하고, 흠집을 잡고, 분열을 키우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 당에는 무엇이 남는 것인가”라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멸칭들이 내부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文정부 수사 검사가 민정수석... 여권 ‘시끌’ 장동혁 병상 공백 속 국민의힘 내홍 격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지휘 이력
청와대 “검찰개혁 이끌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봉욱 전 수석에 이어 또다시 검찰 고위직 출신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하면서 여권 지지층에서 비판이 나온다. 한찬식 선임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를 거느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보원수사관 문제를 다룬 2단계 검찰개혁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번 인선으로 인해 충돌이 커질 우려가 나온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1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단행했다. 이 가운데 논란을 빚는 건 민정수석이다. 새로 임명된 한찬식 수석(사진)은 검찰에서 27년 넘게 근무했고,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인권국장, 울산·수원·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2022년 8월부터는 김연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문제는 한 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내던 2018년 말부터 2019년 4월까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한 이력이다.



신임 민정수석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당시 수사팀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주임 검사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정 2년 차 공식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계와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강성 당원 사이에서는 한 수석 임명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조국혁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과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다. 혁신당은 21일 한 수석 임명 직후 논평에서 “검사 보원수사관과 전간송치주의 문제를 다룬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한 수석 임명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국정 목표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라고 보고 이 또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수석은 27년 동안 검찰에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검찰을 잘 아는 인물”이라며 “사법개혁과 실용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노선을 잘 구현할 인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한 수석 인선에 대한 당 지지층 일각의 반발을 두고는 “통상 인사 개편이 있으면 이런저런 의견이 회자가 된다”며 말을 아꼈다. /서예진 기자

비당권파·쇄신파, ‘시간끌기’ 비판

과로로 집거에 들어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로 입원 5일차를 맞았다. 장 대표는 지난 18일 단식 및 지방선거 이후 올림피아공원 시위 참석 등으로 인한 체력 저하로 입원하면서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다. 비당권파·쇄신파들은 거취 결정 없이 두문불출하는 장 대표를 두고 ‘시간끌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관련 내용에 대해 “빠르게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이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밝힌 바로는 장 대표는 조속한 당무복귀를 위해 의료진과 협의했지만, 퇴원을 하지 못했다.

박 비서실장은 “당 대표께서는 조속한 당무복귀를 위해 오늘 의료진과 협의했지만, ‘당분간 더 치료를 이어가는 게 맞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오늘은 퇴원을 못하게 됐다”며 “당무복귀 시점은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장 대표가 없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또 한 번 당대표의 거취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정당에서 당 대표가 반복적으로 교체됐던 점을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생각의 깊이가 부족하고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급급한 무책임하고 철없는 정치자영업자들이 당 대표를 흔들기 시작했다”면서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당 대표를 무책임하게 끌어내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과감히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설전이 벌어지는 데 대해 “과거에 얽매어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나 따지면서 서로의 공로와 책임을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우리 최고위도 변화와 쇄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빠져 있다. /뉴시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1일) 당에서 배포된 보도 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분석이라는 보도자료를 당 명의로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결과와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를 비교하며, 장 대표 체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밝혔다. 2018년 7회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초기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 제주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압승을 한 바 있다. 2018년과 이번 선거가 비슷한 조건이었지만, 이번에 더 많은 승리를 거뒀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압승한 8회(2022년) 지방선거와는 비교하지 않았다.

계다가 해당 자료에는 “장동혁 당 대표는 선대위 출범부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헌신을 다했다”는 표현이 담겨 논란이 벌어졌다. 장 대표가 거취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사무처에서 이 같은 자료를 내 ‘지원사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전날에도 한 방송에서 해당 보도자료를 비판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한 데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 기자

李 대통령 지지율 46.7%... 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

지지율 6주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46.7%,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9.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리얼미터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집계했다고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8%p 하락해 6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으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해 최저치를 나타

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5.5%p포인트(p) 상승하며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부정 평가가 긍정을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9.9%p ↓)과 인천·경기(7.6%p ↓), 경기·인천(7.6%p ↓), 서울(7.4%p ↓), 광주·전라(1.8%p ↓), 남성(6.2%p ↓), 여성(3.4%p ↓), 50대(9.1%p ↓), 20대(6.2%p ↓), 40대(5.5%p ↓), 30대(2.4%p ↓), 60대(2.4%p ↓), 70대 이상(2.1%p ↓), 중도층(4.9%p ↓), 진보층(3.2%p ↓) 등에서 하락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면서 “이를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새롭게 펼쳐질 당신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이
제2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가 당신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중장년 맞춤형 재취업 교육 지원

· 직무별 특화 교육 및 시실무 역량 강화
·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한 재취업 기회 제공

고령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시니어 토탈 케어 하나 행복드림(Dream) 버스 운영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내집으로 받는 평생연금

· 주택 가격 제한 없는, 내 집으로 준비하는 노후 자산 솔루션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지주사 중심 내부통제 개편... 부산·경남 '전산통합' 과제

BNK금융, 체질개선 속도

빈대인 회장, 경영비용 효율화 '지역 동반성장' 핵심전략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 성장 지원 4억달러 규모 외화대출 유치 등 해외 금융·투자사와 외연확장

BNK금융이 의사결정 구조를 지주사로 집중하고 경영비용을 효율화하는 '체질개선'에 속도를 낸다. 지역 기업에 투자해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업무체계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또 해외 투자유치를 통한 외연 확대도 지속한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의 경영 목표인 '초일류 글로벌 금융그룹'을 목표로 한 전략이다.

◆ **BNK금융, 효율화 목표 '체질개선'**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최근 '그룹 내부통제 정보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그룹 내부통제 체계를 지주사 중심으로 재편했다. BNK금융은 지주사 내에 그룹시너지부, 내부통제부, 해양도시전략팀 등 계열사를 아우르는 부서를 신설해 운영 중인데, 이번 개편도 지주사의 '지휘탑' 역할을 공고하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023년 취임 이후 '효율화'를 목표로 한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과 부산 BNK부산은행 본점. BNK금융지주는 BNK부산은행 본점에 위치해 있다. /BNK금융

'체질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주사 중심의 의사결정과 전략 설계를 통해 은행 계열사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으로 나눠 운영되는 현 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두 은행의 브랜드를 모두 존속해 얻는 지역적 시너지와 브랜드 가치는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BNK금융의 남은 최대 과제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전산통합'이다.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전산을 별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 평균 10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양행의 전산 통합을 가로막았던 '방분리 규제'가 올해 들어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만큼, BNK금융의 전산통합도 이른 시일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지역중심·디지털로 성장 동력 확보**

인구 및 산업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지방소멸로 지방금융의 성장성에도 제동이 걸린 가운데, BNK금융은 '지역 동반성장'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적극적인 금융공급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BNK금융의 지역 동반성장 전략은 정부의 정책 목표와 맞물려 속도를 내고 있다. BNK금융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이 발맞춰 오는 2030년까지 55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역 기업에 공급하는 '지역 생산적 금융프로젝트'를 지난해 말 출범해 투자를 본격화했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와외의 포괄적 업무 협약을 통해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정책 목표에서도 한 축을 맡았다.

업무체계 내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AX)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BNK금융은 지난 4월 지주사의 '그룹AI-미래가치부'를 '그룹AI전략부'로 확대 재편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그룹의 디지털 전환 전략 설계에 나섰다.

디지털 전환의 성과는 빠르게 가시화하고 있다. BNK금융은 지난 4월 금융당국의 금융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 허용에 발맞춰 M365와 코퍼파일럿 등을 업무체계에 도입해 임직원들이 업무에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은행 계열사에서는 자체적인 인어모형을 구축해 고객 상담 등에 활용 중이다. 오는 3분기에는 '그룹 공동 생성형 AI 플랫폼'을 출범해 그룹 단위의 프로젝트 본격화할 예정이다.

◆ **국경 넘은 '외연확대'**

BNK금융은 해외 금융사 및 투자사와의 외연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자금 유치를 통해 빠르게 늘어나는 외화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가치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BNK부산은행은 최근 4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디케이트(다수 금융기관이 분산 출자하는 대출)를 유치했다. 해당 신디케이트

론에는 5개국 13개 금융기관이 참여했으며, BNK부산은행은 새롭게 조달한 달러 자금을 외화 조달-운용 비용 절감, 지역기업의 외화 수요 대응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외 투자자 유치를 통한 외연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BNK금융은 지난 17일 BoA(Bank of America)와 연계해 외국인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BNK금융은 외국인 지분율이 최대 80%에 달하는 다른 금융지주와 비교해 외국인 지분율이 40% 수준으로 낮은 편인 만큼, 해외 투자자 유치를 통한 주가 상승 여력이 큰 편이다.

빈대인 회장은 앞서 BNK금융그룹의 경영 목표로 '초일류 글로벌 금융그룹'을 제시한 바 있다. 동남권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의 최우선 금융기관으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적극적인 해외 영업과 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가치 및 성장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빈대인 회장은 올 신년사에서 "BNK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공방정식'을 통해 다가오는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라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장하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로 안정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미래형 금융을 통해 지역과 산업, 일상의 성장을 연결하는 BNK만의 금융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내달 수도권 9000세대 입주... 전월비 52% ↑

인천 검단·경기 서남부권 중심 입주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1만4106세대

다음달 수도권 입주물량이 9000세대에 달하면서 공급기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전반적인 공급 확대보다는 검단신도시와 경기 일부 지역에 물량이 집중됐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4106세대로 전월 대비 4.5%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9082세대, 지방이 5024세대다.

수도권은 9082세대로 인천 검단과 경기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대단지 입주가 예정되면서 전월 대비 52.4%나 늘었다.

인천에서는 ▲e편한세상검단월곡언더(1458세대) ▲e편한세상제물포역파크메

종(736세대), e편한세상검단에코비스타(732세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검단신도시에서는 총 2190세대가 동시에 입주한다.

반면 서울에서는 단 2개 단지, 450세대만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초구 오티에르반포(251세대)와 서대문구 경희공유보라(199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 물량 증가는 검단신도시와 경기 일부 지역의 대단지 입주 영향이 크다"며 "입주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매매 및 전세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지역별 공급 규모에 따라 시장 흐름에도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는 인천시(1822세대), 평택시(1554세대), 시흥시(1026세대) 등에서 대단지 위주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지방 입주물량은 5024세대로 전월 대비 33.4% 감소한다. ▲대전(1754세대) ▲광주(1008세대) ▲울산(848세대) ▲충북(715세대) 등에서 공급이 예정됐다. 대전 유성구 도안우미린트라세이드가 1754세대로 이달 지방 입주 단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입주물량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올 하반기 전국 입주예정 물량은 8만 6352세대로 집계됐다. 상반기 대비 7.0% 감소한 규모다. 수도권은 4만4613세대로 상반기보다 늘지만 지방은 4만1739세대에 그친다.

다만 서울은 상반기 6151세대에서 하반기 1만1490세대로 입주물량이 늘어난다. 디에이치방배, 힐스테이트메디알레 등 정비사업을 통해 대단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보이지 않는 곳서 위험 찾아 사고 예방"

김기환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취임

김기환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22일 취임식에서 "협회를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미래를 지키는 종합재난위험관리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새로운 경영 캐치프레이즈로 '국민의 내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제시했다.

그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하루와 재난 없이 가족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하루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을 찾아

내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협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따른 대형 재난 증가와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위험의 등장,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협회의 경영 방향으로 ▲함께 성장하는 협회 ▲함께 소통하는 협회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를 제시했다.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위험관리를 선도하겠다고

는 구상이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기관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오늘의 안전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내일의 안전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KB국민은행에 입행한 뒤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상무와 리스크관리전무, KB금융지주 리스크관리총괄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이역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서울 성수동에서 출근길 청년에게 커피를 나누주고 있다. /금융위

이역원 금융위원장, 청년미래적금 적극 홍보

성수동서 청년들에 무료커피 배부

이역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첫날을 맞아 출근길 청년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주며 '청년미래적금' 가입 홍보에 나섰다.

이역원 위원장은 22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성수동을 찾아 청년들에게 무료 커피를 배부했다. 커피와 함께 제공되는 컵홀더에는 청년미래적금 공식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인쇄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대상, 신청절차, 지원내용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과 납입액에 비례해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적금형 상품이다. 월 50만원의 납입액에 기관별 최대 우대금리인 8%를 적용하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지원하는 '우대형'을 기준으로 최고 연 19.4% 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7월 3일까지 2주간 국내 13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수협·기금·부산·IM·경남·광주·전북·키카오)

과 우체국 앱을 통해 가입을 접수한다. 첫째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접수하며, 둘째 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을 접수한다. 가입신청은 취급 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이역원 위원장은 "오늘부터 판매되는 청년미래적금은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자산형성의 동반자이자 희망의 사다리라 될 정책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의 자산형성은 단순히 개인의 저축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투자다"라며 "정부도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자신을 축적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시작으로 자산형성 사다리를 더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년미래적금은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대부분의 절차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가입 신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만큼, 청년들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

LG 경영진, 엔비디아 본사 향한다 AI·로봇 등 사업 협력구도 구체화

구광모 회장, 이달 초 젠슨황 회동 CTO·연구인력 등 워킹그룹 구성 기술교류 넘어 실제 사업적용 관측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그룹 주요 계열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연구진이 미국 엔비디아 본사로 향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방한해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난 지 한 달 만이다. 영업 조직 대신 연구개발 인력이 총출동하면서, 양사 협력이 기술 교류를 넘어 엔비디아 기술의 실제 적용 분야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훈 LG전자 CTO(부사장)와 이현욱 HS연구센터장(부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정수현 LG사이언스파크 대표(부사장), 민준 LG이노텍 CTO(상무) 등 경영진과 LG전자·LG이노텍·LG CNS·LG AI연구원 실무진을 포함한 30여명 규모 워킹그룹은 이날(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한다. 양측은 기술 세션과 과제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방문단이 영업·사업 조직이 아닌 기술 수장과 연구 인력

중심으로 꾸려졌다는 점이다. 사업 책임자가 아닌 CTO와 연구진이 대거 참여한 만큼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기술 방향을 논의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임원 간 상견례에 머물렀던 이전 단계에서 실무 연구진까지 직접 움직이면서 협력이 기술 검토를 넘어 실제 사업 적용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방문은 엔비디아 기술을 어디에 적용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 LG 계열사들이 각자 어떤 사업을 맡을지 가능

자가 냉각과 로봇, LG이노텍이 광학 센서 등 부품, LG CNS가 AI 팩토리를 각각 맡는 형태로 협력 구도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로봇 분야도 핵심 협력 대상으로 꼽힌다. LG전자는 올해 1월 CES 2026에서 엔비디아 로봇 칩 ‘젯슨 토르’를 탑재한 가정용 로봇 ‘클로이’를 공개하고, 엔비디아 ‘아이작’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 환경에서 학습·검증을 진행해 왔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기존 클로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엔비디아 기술 적용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고 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와 플랫폼을 공급하지만 자체 제조 기반은 없다. 반면 LG는 가전·전자·디스플레이를 직접 생산하고 부품과 IT서비스까지 아우른다. 엔비디아의 AI 기술을 실제 제품과 생산 현장에 구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조 파트너로 평가받는 이유다.

젠슨 황 CEO는 지난 8일 구광모 회장과의 회동 직후 “LG와 협력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로보틱스”라며 “가까운 미래에 공유할 발표가 많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타이어 3社, 中 프리미엄·전기차 시장 공략

OE 공급 등 점유율 경쟁 치열

넥센타이어가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 BYD와 손잡고 중국 공략에 나선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등 한국 타이어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및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 고부가가치 전략에 나선 가운데 넥센타이어 합류로 시장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넥센타이어는 BYD의 ‘쉴 6(SEAL 6)’와 ‘돌핀 서프(Dolphin Surf)’ 두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OE)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제품은 고성능 여름용 타이어 ‘엔페라 스포츠’다. 중국 완성차 업체에 대한 첫 OE 공급으로 전기차 타이어 분야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특히 중국 내수 시장은 한국 기업에 합치로 좁히지만 이번 공급은 고수의 제품군에 집중한 프리미엄 전략의 성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측은 “BYD 두 차종에 OE 공급을 개시한 것은 하나의 타이어로 전기차와 내연기관 등 차종의 구분 없

이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는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중국 자동차 시장 변화에 맞춘 ‘전동화’ 기술력 강화로 현지 시장 점유율을 높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24년 한국타이어는 837만7800개(점유율 8.00%)를 공급하며 전체 4위에 올랐다. 금호타이어 역시 508만800개(점유율 4.85%)를 공급하며 9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24년 중국 시장에 세계 최초 풀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을 출시했으며, 금호타이어는 중국 내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한국 타이어 기업들이 프리미엄과 전기차 전용 타이어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며 “한국의 기술력이 해외 브랜드와 비슷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중국 기업들의 선호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에너지솔루션 ees 유럽 2026 부스 조감도.

삼성, 인도 프리미엄 주거단지 HVAC 공급

3000여대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 적용 오피스 등 현지 주거시장 본격 공략

삼성전자가 인도 프리미엄 주거단지에 고효율 공조(HVAC) 솔루션을 공급하며 현지 주거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

22일 삼성전자는 인도 부동산 개발업체 센트랄파크와 협력해 인도 구루agram 지역에 조성 중인 주거단지 ‘디 오차드’에 공조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300세대 규모 단지에 3000여 대의 삼성전자 가정용 시스템에어컨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다.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구루agram은 뉴델리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위성도시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이 진출해 있는 인도 북부의 대표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지로 꼽힌다. 고소득층 주거 수요가 많고 여름철 최고 기온이 45도를 웃돌아 고효율 공조 설비 수요도 높다.

삼성전자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DVM S2’와 ‘무풍 1Way 천장형 카세트’를 적용한다.

DVM S2는 실외기 1대로 최대 64대의 실내기를 연결할 수 있어 대규모 주거단지나 상업시설, 학교 등에 적합하다. 고강도 프레임 적용해 내부 핵심 부품의 구조적 안정성을 기존 대비 최대 210% 향상시켰으며 저진동 설계로 규모 9수준의 강진 환경에서도 작동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 실내의 환경 변화에 맞춰 냉방 성능을 높이는 ‘AI 쾌속냉방’, 센서 정보를 기반으로 전력 소비를 약 15% 절감하는 ‘AI 에너지 세이빙’, 냉매 누설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AI 실시간 냉매 누설 감지’ 등 AI 기반 맞춤형 제어 기능을 지원한다.

실내에는 삼성전자의 주거용 공조 솔루션인 ‘무풍 1Way 천장형 카세트’가 설치된다. 직바람 없이 쾌적한 냉방을 제공

하며 높이 135mm의 슬림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PM 1.0 필터(초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탑재해 초미세먼지를 걸러내고 포집된 유해세균을 99% 살균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와 연동하면 스마트폰으로 각 방의 온·습도와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전력 사용량 확인과 AI 절약 모드를 통한 에너지 관리도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이번 공급을 계기로 오피스와 쇼핑몰, 호텔 등 상업용 건물 중심의 HVAC 사업을 프리미엄 주거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성택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HVAC 기술 경쟁력과 현지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바탕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주거 시장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LG엔솔, AI DC용 배터리 솔루션 선보

ees 유럽 참가…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

LG에너지솔루션이 유럽 최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ESS) 전시회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배터리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다.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망 안정화와 비상전원 확보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전력망용 ESS와 무정전 전원장치(UPS)·배터리백업장치(BBU) 제품군을 앞세워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3일부터 25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뮌헨 메세 뮌헨에서 열리는 배터리 및 ESS 전문 전시회 ‘ees 유

럽 2026’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AI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는 전력 인프라를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AIDC)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다. 전력망용 ESS와 UPS·BBU 등 배터리 솔루션에 더해 유럽 현지 생산 역량과 배터리 규제 대응 체계를 함께 공개하며 시장 경쟁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럽 배터리 규제 대응 역량도 제시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시장 내 키오스크를 통해 배터리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배터리 패스포트’ 대응 현황을 보여준다.

/원관희 기자

한국엔컴퍼니, ‘2050 탄소중립’ 역량 집중

‘그룹사 에너지 교류회’ 개최

한국엔컴퍼니그룹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룹 차원의 ‘원팀’을 가동하며 에너지·탄소관리 역량 결집에 나섰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지난 17일 대전 유성구 한국엔지니어링랩에서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엔컴퍼니,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한온시스템 3사의 에너지 담당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사 에너지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교류회는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와 공급망 전반의 감축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각사의 주요 에너지원 및 온실가스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배출권거래제 대응과 2026년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에너지 절감 및 탄소 저감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이를 그룹 전반에 확산·적용하기 위한 벤치마킹 전략을 모색했다.

한국엔컴퍼니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기업 경쟁력과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그룹사 간 역량을 결집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창출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SK에너지, 석유제품 공급가격 사전고지

새로운 정책 도입… 유통시장 안정 기여

SK에너지가 주유소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는 새 가격정책을 도입하며 석유제품 유통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SK에너지는 공급가격 사전 고지와 사후정산 폐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가격정책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새 가격정책은 주유소와 대리점 등 유통망에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

할 때 거래조건을 표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주 단위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는 방식이다.

SK에너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공급가격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주유소 판매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SK에너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도 추진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안정적인 원유 조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원유 수입처 확대와 관련 설비 투자를 통해 현재 약 70% 수준인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을 장기적으로 50%까지 낮추고 중동 외 지역의 대체 원유 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화 SK에너지 사장은 “SK에너지는 책임 있는 에너지기업으로서 공급가격 결정 구조 개선과 국민 생활 안정 지원,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중소 근로자 85% “결혼·출산·육아, 대기업보다 어렵다”

중기중앙회·저고위, 정책 간담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 공동 모색

육아제도 못 쓰는 직장문화 1순위
복지 격차·대체인력 부담도 원인
김 회장 “저출생, 미래의 핵심 과제”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10명 중 8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재직자보다 결혼·출산·육아가 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에 비해 출산·육아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중소기업 근로자 10명 중 6명은 결혼을 고민중이거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 계획에 대한선 질문이 없었다고 답한 가운데 ‘고민 중’이라는 답변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7명이 자녀 계획에 대해 유보적인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기중앙회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함께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맞아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소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를 전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니스 회장, 김택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회

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한국여성리더연합 소속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임직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기문 회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꼭 풀어야 할 숙제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면서 “저고위가 9월부터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 타워가 돼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근로자 300명,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00명 등 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날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보다 결혼·출산·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4.6%에 그쳤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출산·육아 제도 활용이 어려운 직장 문화’(63.5%)가 1순위로 꼽힌 가운데 ▲복지 수준 차이(49%) ▲대체 인력 채용 어려움 등 동료·사업주 부담 비중(46.7%)도 적지 않았다.

‘결혼 의향’에 대한선 ‘있다’는 답변이 42.9%로 절반에 못 미치는 가운데 ‘고민 중’은 29.9%, ‘없다’는 27.2%였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부담되는 요인’은 ▲주거비 등 비용 부담(57%) ▲가사 등 결혼 후 역할 부담(52.7%) ▲소득·고용불안(35%) 등을 꼽았다.

‘자녀 계획’에 대한선 절반이 넘는 51%가 ‘없다’, 25.7%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낳겠다’는 답변은 23.3%에 그쳤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연구원은 “출

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선 경제적 지원 확대와 함께 실제 근로·영업 환경에 맞는 돌봄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며 “특히 제조업 고대근무, 소상공인의 야간·주말 영업 특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문 결과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복수응답)으로 ▲근로 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47.7%) ▲어린이집 등 돌봄 인프라 확대(35.7%)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32.7%) 등을 꼽았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기업 여건 등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가족이 있는 삶을 위해선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고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모두의 창업’ 해킹 파장... 5000명 영입비밀 보호 지원

중기부 “피해구제·재발 방지 총력”
TF 중기부 단위 격상... 1차관 팀장
사이버안보팀 꾸려 산하기관 종합 점검

모두의 창업 플랫폼 정보 유출로 복병을 만난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 선정자 5000명 전원에게 무상으로 영입비밀 원본증명을 지원한다. 영입비밀 원본증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향후 분쟁 발생시 영입비밀의 존재, 보유자 및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태스크포스(TF)’를 기존 창업국에서 중기부 단위로 격상해 1차관이 TF팀장을 맡는다. 특히 TF에는 정보화담당관이 관장하는 사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본관에서 ‘모두의 창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버안보팀을 별도로 꾸려 이번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향후 중기부 산하 공

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피해를 우려하는 도전자분들을 최우선으로 해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철저한 조사까지 총력을 다해 점검·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성숙 중기부 장관 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준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걱정과 불편을 겪은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합격자 정보 유출과 관련해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합격자 프로필 페이지가 열린 후 연결된 이메일, 200자 이내의 아이디어 요약본, 그리고 심사평이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다.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

노 차관은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있는 자처럼 암호화된 정보를 가져간 만큼 현재로서는 이를 ‘해킹’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모두의 창업 합격자 최대 5000명의 일부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보고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세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식품 소공인 제조혁신 박차
스마트 해썹 구축 연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협업해 ‘2026년 소공인 부처협업형 스마트제조·스마트 해썹 구축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오는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22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식품·축산물 소공인의 제조공정 개선과 스마트 해썹 등록을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스마트 제조장비 도입을 통해 제조현장의 데이터 수집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 해썹 등록과 연계해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식품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중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로서 스마트 해썹 최초 등록 또는 추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이다.

/김승호 기자

광주·대구·대전·울산 ‘창업도시’ 육성 박차 CJ대한통운, 물류현장 AI 안전관제 확대

중기부, 지역 창업기업 278곳 선발
기업당 최대 4억 사업화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광주, 대구, 대전, 울산을 혁신 인제가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창업 도시’로 키운다. 이들 지역에서 창업기업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고 우수 창업기업의 지역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총 278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4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다음달 7일까지 ‘2026년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창업기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창업도시’는 지역내 자원과 정부의 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방에서 창업이 성장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모집 대상은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와 ‘지역창업패키지’로,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는 투자유치 이력이 있는 초기 단계 기업을 돕고 지역창업패키지는

지역내 창업기업의 성장 및 이전을 각각 지원한다. 지역별로 광주 73개사, 대구 74개사, 대전 74개사, 울산 57개사를 각각 선발한다. 특히 278개사 중 100개사는 기존 중앙 주도 선발이 아닌 지방정부가 자율 선정 방식으로 뽑는다. 자율선정 방식을 제외한 공모선정 방식은 ‘K-스타트업 공개 모집’으로 진행되며 총 178개사를 선발한다.

창업도시로 이전을 원하는 희망기업도 지원한다. 선정된 지역 이전 기업에게는 지방정부가 자부담금의 10%를 별도 제공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균형발전, 지역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신규 창업도시 6곳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생태계 100위권 내 창업도시 5곳을 육성하고 비수도권도 함께 성장하는 다핵형 창업생태계로 전환을 꾀한다.

/김승호 기자

전국 57개 사업장 실시간 모니터링
CCTV·바디캠으로 이상징후 감지

CJ대한통운이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제 체계를 통해 물류현장 안전 사고를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환경·보건·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자동관제 사업장을 57개로 확대하고 AI CCTV 적용 거점을 늘리는 등 전국 물류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22일 밝혔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먼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AICCTV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22개 사업장에 설치한 AI CCTV는 작업자의 움직임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 쓰러짐, 장시간 움직임 없음 등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EHS 상황실



CJ대한통운 EHS 상황실에서 근무자들이 CCTV를 살펴보고 있다.

/CJ대한통운

에 알림을 통해 전달한다.

CJ대한통운은 AI CCTV의 성능 고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물류현장의 작업 동선과 설비 환경, 작업 형태 등 다양한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위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현장 안전관리자가 착용하는 바디캠을 전 사업장에 적용했다.

/김승호 기자

여기중

여성창업 전주기 지원

공공형 창업기획자로 도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기중)가 여성 창업 시작부터 도약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공공형 여성 창업기획자’로 본격 활동에 나선다. 여기중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등록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중은 그동안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와 전국 18개 창업보육센터(BI) 운영을 통해 유망 여성 창업가 발굴·육성에 앞장서 왔다. 직접 투자 기능까지 갖추며 명실상부한 ‘여성 스타트업 전주기 지원 기관’으로 발돋움한다는 포부다. 핵심 추진 전략은 성공한 선배 여성 기업인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는 ‘여성창업펀드’ 조성 및 이를 통한 ‘상시 투자 연계’다.

/김승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포털 검색 대신 유튜브가 추천하는 뉴스 ‘대세’

달라진 뉴스 소비 방식

‘지난해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 30%, 동영상 플랫폼 뉴스 소비 포털뉴스, 조사來 최저 수준 기록 언론사도 플랫폼 중심 경영 강화 허위정보·가짜뉴스 확산 등 주의

유튜브가 단순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국내 뉴스 소비의 핵심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용자들이 직접 뉴스를 검색하거나 포털 첫 화면을 방문하는 대신 플랫폼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뉴스 유통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업계에 따르면 뉴스 소비의 출발점이 검색 기반 포털에서 추천 기반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유튜브 흡화면과 쇼츠를 중심으로 한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뉴스를 의도적으로 찾지 않더라도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 이용 행태 변화도 수치로 확인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30.0%로 전년 18.4%보다 크게 증가했다. 반면 포털 뉴스 이용률은 66.5%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스 소비의 주도권이 검색에서 추천으로 이동하고 있다.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이용했다는 독자들이 증가한 반면, 포털의 뉴스 이용률은 최저를 기록했다는 언론진흥재단의 ‘2025 언론수용자 조사’가 나왔다. /AI가 만든 이미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표한 ‘디지털뉴스리포트 2026’에서도 한국의 유튜브 뉴스 이용률은 49%로 조사 대상 48개국 평균인 31%를 크게 웃돌았다.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유튜브 기반 뉴스 소비가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포털 중심 질서 흔들…언론사 전략도 변화

업계는 현재의 변화를 단순한 플랫폼 이동이 아닌 ‘뉴스 유통 권력 재편 과정’으로 해석한다. 과거에는 포털이 뉴스 소비의 첫 관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사실상 이용자의 ‘첫 화면’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30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모바일 동영상 소비 확대가 중장년층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유튜브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특정 언론사 홈페이지나 포털을 방문하기보다 일상적인 유튜브 이용 과정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이용자가 뉴스를 보기 위해 플랫폼을 찾았다면 지금은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뉴스를 보여주는 구조”라며 “뉴스 소비의 주도권이 검색에서 추천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해 언론사들도 유튜브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방송사는 뉴스 클립과 실시간 스트리밍을 확대하고 있으며 신문사들도 유튜브 전용 콘텐츠 제작 조직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언론사는 홈페이지 방문

자 수보다 유튜브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핵심 성과 지표로 관리하는 등 플랫폼 중심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커지는 알고리즘 영향력…책임론도 확산

유튜브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유튜브는 직접 뉴스를 생산하지 않지만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어떤 콘텐츠를 추천하고 노출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 접근과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확산 문제는 여전히 주요 과제로 꼽힌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체 정책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추천 알고리즘 특성상 자극적인 콘텐츠가 더 높은 확산력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플랫폼 중심 뉴스 소비 확산에 대응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방송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표현의 자유와 산업 혁신을 고려한 새로운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이 뉴스 접근 경로를 사실상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며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KT엠모바일 “대화형 AI로 맞춤형 요금 추천 받으세요”

KT엠모바일은 대화형 AI 요금 추천 서비스를 공식 다이렉트몰에 연다고 22일 밝혔다.

‘대화형 AI 요금 추천’은 KT엠모바일 또는 비가입자를 대상으로 챗GPT 기반의 생성형 AI와 대화를 통해 고객의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찾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채팅창에 대화형으로 질문하면 AI가 요금제 최적의 추천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하루 3시간씩 보는데 무슨 요금제가 좋아?’와 같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물으면 AI가 이용 패턴을 파악한다. 이후 적합한 요금제 목록과 추천 이유를 설명해준다.

통신 청구서를 이미지 파일로 올리는 방법도 있다. AI 분석을 통해 사용 패턴 검색, 인터넷·TV 결합 상품 추천, 인기 요금제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등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

추천 결과는 SMS·카카오톡으로 공유 가능하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이 낮은 부모님의 요금제를 자녀가 대신 알아보거나 요금제를 찾아 공유할 수 있다.

한편, KT엠모바일은 2024년 업계 최초로 AI 자동개통을 도입하는 등 AX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본인확인 및 개통을 AI 보이스봇이 직접 전화를 걸어 처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eSIM 사용자까지 확대했다.

/조민선 기자



(왼쪽부터)카카오게임즈 이시우 공동대표와 카카오게임즈 김태환 공동대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김태환·이시우 대표와 M&A·IP 경쟁력 강화

카카오게임즈는 22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김태환·이시우 선임 공동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넥슨과 라인게임즈에서 인수합병(M&A)과 전략적 투자를 주도해 온 사업 전문가다. 카카오게임즈에서는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과 글로벌 사업 확대, M&A 및 투자 업무를 총괄한다.

이 대표는 2015년 카카오게임즈 창립 초기부터 모바일 사업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오딘: 발할라 라이징’ 등 주요 게임의 성공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게임 사업 전반과 신작 퍼블리싱, IP 포트폴리오 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는 비핵심 사업 정리와 재무구조 개선을 마무리한 만큼 확보한 재무 건전성을 기반으로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망 개발사 투자와 인수합병을 확대하고 IP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환 대표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확고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대표는 “라이브 서비스 역량과 신작 라인업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IP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AI 인재’ 신입·경력 모십니다”… AI 채용공고 70% ↑

잡코리아, 1월~5월 채용공고 분석 AI 키워드 포함 공고 약 1.5만건 전체 11개 업종 중 10곳서 증가

기업들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 IT 기업 중심이었던 AI 채용 수요가 교육·미디어의료 등 비IT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채용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22일 잡코리아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등록된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AI 키워드가 포함된 공고는 약 1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채용공고 증가율이 1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AI 채용 수요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AI 인재 수요는 경력직뿐 아니라 신입 채용 시장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신입직 AI 관련 공고는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기업들이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력 확보를 넘어 미래 AI 인재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는 의미다.

AI 채용 열기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전체 11개 업종 가운데 10개 업종에서 AI 관련 채용공고가 증가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교육업이 185%로 가장 높았으며 미디어·광고 154%, 문화·예술·디자인 139%, 의료·제약 123%, 기관·협회 116% 순으로 나타났다.

AI 공고 규모는 IT·정보통신 업종이 가장 많았지만 제조·생산, 서비스, 미디어·광고, 교육업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생성형 AI가 실제 업무 환

경에 적용되면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콘텐츠 제작과 연구개발, 데이터 분석,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직무에서 AI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인재 확보 경쟁은 대기업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은 AI와 데이터 분야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AI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는 기업들도 관련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다.

/최빛나 기자

네이버, 평균 검색 점유율 66%대 진입

‘AI 탭’ 선보인 후 2.52%p 상승

네이버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으로 기존 포털 검색 이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오히려 검색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웹로그 분석 사이트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네이버의 평균 검색 점유율은 63.82%를 기록했다. 그러나 네이버가 AI 기반 검색 서비스 ‘AI 탭’ 베타를 선보인 이후인 4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평균 점유율은 66.34%로 2.5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24일에는 검색 점유율이 81.34%까지 치솟으며 80%를 돌파했다.

AI 탭은 네이버 검색창 우측에 배치된 대화형 검색 서비스다. 이용자가 AI와 자연어 기반 대화를 통해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네이버는 이달 말 AI 탭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검색 결과 상단에 제공되는 AI 브리핑 서비스도 이용자 유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AI 브리핑은 이용자의 검색 질의를 AI가 분석해 핵심 정보를 요약 제공하는 기능이다. 네이버는 연말까지 전체 검색 질의의 약 40% 수준까지 AI 브리핑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AI 브리핑과 AI 탭이 기존 검색 경험을 대체하기보다 검색 편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체류시간과 검색 빈도를 늘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LG U+, AX로 업무 효율성·생산성 개선

MS 코파일럿 사내 업무 도입 기존보다 업무시간 약 90% 줄어

LG유플러스가 사내 인공지능 전환(AI) 추진 결과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사내 업무에 도입한 지 한 달 만에 임직원 사용률이 80%를 넘어섰다. 지난해 업무 표준 도구로 활용한 이후 누적 프롬프트 수는 44만 건을 돌파했다.

회사 측은 생성형 AI가 특정 조직이나 직무에 한정되지 않고 전사 업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활용률이 70% 수준인 점을 고

려하면 도입 초기부터 AI 활용 업무가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

LG유플러스는 코파일럿을 내부 업무 데이터와 연동해 회사에 최적화된 AI 환경을 구축했다. 외부 AI 서비스 활용은 보안 우려로 제약이 발생하고, AI 분석을 통한 결과와 업무 데이터가 부합하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업무 수행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데이터 분류 업무는 코파일럿 내 로드도 모델에서 기존 설정과 분류를 자동화했다. 이를 통해 업무 시간이 기존보다 약 90% 감소했다. 보고서 작성 방식도 업무 맥락을 반영하고 초안을 생성한 후 간단한 수정을 거쳐 완성하는 수준까지 활용도가 높아졌다.

/조민선 기자 msjo@

박현주 글로벌 전략 결실... 미래에셋 연금자산 80조 돌파

(회장)

올해만 43만명 신규 연금 고객 유입
자산배분 전략·해외 확대 기조 성과
모바일 앱 'M-STOCK' 만족도 높아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원본 출처 미래에셋증권

연금이 '저축'에서 '투자'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 연금자산 80조원 고지를 넘어섰다. 국내 금융투자 업계 최초 기록으로, 투자형 연금 수요 확대 속에 자산배분 전략과 연금 관리 역량이 고객 유입으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자산(납입금액+ 운용손익)이 지난 15일 기준 80조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금 자산은 퇴직연금 51조5300억원, 개인연금 28조5800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대표 연금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미래에셋증권을 찾는 고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만 43만명의 연금 고객이 새롭게 가입했다.

올해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으로 유입된 퇴직연금

적립금은 4조3426억원으로 전체 시장 유입액 11조9000억원의 약 36%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 증가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DC(확정기여형) 적립금 전 업권 1위 달성을 기념해 전체 DC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3만 4002명이 응답한 가운데 56%는 미래에셋증권을 선택한 이유로 '연금 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브랜드 신뢰도'를 꼽았다. 이어 주변의 긍정적 추천(19%), 관리 편의성(17%) 순으로 나타났다.

연금 관리에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로는 '편리한 모바일 앱 서비스'가 3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M-STOCK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연금 자산을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도 27%의 응답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 투자 경험이 부족한 고객도 손쉽게 자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MP구독 서비스와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시장 변화에 맞춘 자산배분 전략을 통

해 장기 투자 관리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브랜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9%가 미래에셋증권을 '앞서가는 수익률과 차별화된 운용 역량을 갖춘 투자 전문가'로 평가했다. 37%는 '신뢰와 안심을 주는 1위 사업자'라고 답했다.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연금 자산관리 역량이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는 상품 상담뿐 아니라 질세, 건강보험료, 은퇴 이후 현금흐름 관리 등 노후 설계 전반에 대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금자산관리센터를 본부로 확대하고 로보자산관리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도 시행했다.

연금 자산 확대 힘입어 미래에셋증권의 전체 고객자산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고객자산(AUM)은 지난 5월 말 기준 8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자산 약 718조원, 해외 자산 약 85조원이다.

이는 미래에셋그룹의 GSO(글로벌전략 책임자)인 박현주 회장이 주도해 온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과 해외시장 확대 기조가 고객자산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미래에셋은 현재 전 세계 21개 지역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요 해외법인들은 연이어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홍콩 시장 글로벌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구축, 미국 증권사 인수 추진 등 글로벌 사업 확장도 이어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우량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자산배분 전략을 지속해왔다. 단기 성과보다 연금 자산의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장기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업계 최대 규모의 연금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업계 유일의 4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연금자산관리센터를 본부로 확대하고 로보자산관리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연금 적립금 80조원 돌파는 고객이 미래에셋증권을 믿고 선택해준 결과"라며 "가입자의 필요를 먼저 읽고 고객의 노후와 미래를 책임지는 연금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韓증시, 내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분수령'

韓 투자상품 가용성 평가 상향 조정
MSCI "시장 접근성 아직 미해결"
내년 편입 발표, 2028년 편입 기대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첫 관문에 다시 선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방과 영문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어지면서 관찰대상국 등재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MSCI가 외환시장 자유화와 결제·정보 접근성 등 핵심 항목에 대해 여전히 '개선 필요' 평가를 유지하면서 실제 등재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SCI는 한국시간 오는 24일 연례 시장 재분류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이 선진국지수 편입 후보국인 관찰대상국(위차리스트)에 오른다면 2027년 편입 발표, 2028년 실제 편입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 2008년 관찰대상국에 올랐지만 외국인 투자 접근성 부족 등을 이유로 선진국지수 편입이 불

발됐고,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올해 기대감이 커진 배경은 정부의 시장 접근성 개선 작업이다.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외국인 투자등록제 개선, 영문공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MSCI도 최근 공개한 글로벌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 증시의 '투자상품 가용성' 항목을 기존 '개선 필요(-)'에서 '개선 가능(+)'으로 상향했다. 한국 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이 국제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글로벌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늘어났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서는 관찰대상국 등재 자체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규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39가지 MSCI 로드맵 주요 과제 캘린더를 발표하고 상반기까지 71.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이 선진국 위차리스트에 등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 유입 기대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올해 관찰대상국 등재 시 밸류에이션 상승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 규모가 약 292억달러(약 4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지수 편입에 따른 구조적 효과에도 주목한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편입 이후 자금 유출입과 지수 변동성이 낮아지고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선물을 중국과 신흥시장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활용하던 비중도 감소할 것"이라며 "선진국 편입에 따른 구조적 장점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실제 관찰대상국 등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MSCI는 한국의 개혁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한국은 18개 시장 접근성 평가 항목 가운데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 흐름, 청산 및 결제, 증권 이동성 등 5개 항목에서 여전히 '개선 필요' 평가를 받았다.

가장 큰 변수는 외환시장이다. MSCI는 한국이 24시간 역외 외환거래와 2027년 역외 원화 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완전히 가동 가능한 역외 원화시장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역외 외환시장에도 제약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영문공시와 투자자 등록 체계도 과제로 남았다. MSCI는 기업 정보가 영어로 항상 원활하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2027

년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영문공시가 확대된 이후 제도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에서 법 인식별기호(LEI)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두 제도가 병존해 옴니버스 계좌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는 한국의 자본시장 개혁 노력과 추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근본적인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봤다"며 "제도 개혁 자체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반도체 투자 열풍... 삼성운용, 글로벌반도체펀드 1조 달성

설정 약 5년 만에 성과



삼성자산운용은 '삼성 글로벌반도체펀드'가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자산운용은 '삼성 글로벌반도체펀드'가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기준 이 펀드의 순자산은 1조599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9월 최초 설정한 이후 약 4년 9개월이다.

이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A클래스 기준 헤지(H)형 200.4%, 언헤지(UH)형 229.7%에 달한다.

같은 기간 나스닥100 지수 상승률(40.0%)을 5배 이상, 같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인 수혜가 기대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투자해 반도체 매출액 기준 글로벌 상위 20개 기업을 집중적으로 담는다.

이를 통해 미국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한국, 대만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들에 분산 투자한다.

서민웅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에이전틱 AI에서 피지컬 AI로 이어지는 AI 투자 사이클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혜 산업이 바로 반도체"라며 "메모리를 비롯한 반도체의 전반적인 초과 수요 업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73.1%)보다 27.3%포인트 높은 성과다. 이 펀드는 AI(인공지능) 산업의 직접적

/허정윤 기자

거래소, 내달 코스닥 30주년 기념식 연다

기업 IR·세미나도 진행

한국거래소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코스닥 시장 개설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1996년 7월 1일 개장한 코스닥의 30주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첨단·혁신산업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도 진행된다.

기념식 직후에는 한국IR협의회·코스닥 협회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 IR과 관련 전문가 강연, 세미나를 진행하는 '코스닥 커넥트(CONNECT) 2026'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코스닥 상장사 100여개와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탈(VC), 증권사 등이 참석하며, 제약·바이오와 로보틱스, 뷰티 등 8개 산업 부문 전문가 강연과 VC 투자 트렌드 설명, 코스닥 상장사 CEO 대담 등이 예정돼 있다. 대담에는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회장과 실리콘투 김성운 대표, 토모큐브 박용근 대표가 나선다.

이 코스닥 커넥트는 사흘간 열리며, 2~3일은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다.

기업 IR에는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HPSP, 피에스케이, 로보티즈, 파마리서치 등이 나서며, 코넥스 상장사 이엠티, 노브메타파마, 메디씨이 등 다수 업체도 참가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대불·군산·명지녹산 3개 산단 잇는다... 조선업 AI 전환 가속

산업부, 특화 역량 연계방안 논의
제조데이터·AI 모델 등 공동 활용
설계·생산·품질관리 전주기 혁신
업계, 데이터 수집·처리 지원 요청

정부가 대형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국내 주요 조선 산업단지를 연계해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AI)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파급효과가 큰 조선업 공급망 전반에 AI를 접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2일 목포 호텔현대에서 조선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3개 산업단지의 'MINI 얼라이언스 합동 간담회'를 열고, 조선업 인공지능 전환(M.AX) 추진 전략과 산단 간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은 설계·소재부터 대·중·소형 조선소와 기자재, 협력업체가 긴밀히 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루비홀에서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 이후 부대행사로 개최된 'M.AX 카라반' 현장을 방문해, 업계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산업부

결된 대표적인 공급망 산업이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 거점 산단의 강점을 상호 연결하는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모색했다.

현재 국내 주요 조선 산단은 기능별로

특화되어 있다. ▲전남 대불산단은 대형 조선소와 중소 협력업체가 집적된 국내 최대 해양 클러스터이며, ▲전북 군산산단은 중·소형 선박 및 해양 모빌리티 제조 중심, ▲부산 명지녹산산단은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의 약 60%가 밀집해 있는 거점이다.

이들 3개 산단 얼라이언스는 개별적인 과제 수행에서 벗어나, 제조 데이터를 통합하고 지식을 연결하는 '전주기 AI 활용 체계'를 공동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산단별 구체적인 M.AX 연계 방안도 공유됐다. 대불산단은 제조 데이터와 AI모델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선 분야 공통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고, 명지녹산산단은 설계·제조·관리를 효율화하는 조선업 특화 AI 검색 엔진 개발 및 확산 방안을, 군산산단은 설계 시뮬레이션 및 제조 품질관리 AI 모델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AI 모델의 성능과 확산은 결국 양질의 데이터 확보에 달려 있다는 점과, 조선 분야 공통의 데이터 수집, 전송,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인프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

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조선산업은 수많은 기업과 공정이 맞물려 돌아가는 핵심 공급망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산업"이라며 "세 거점 산단이 현장을 중심으로 데이터와 모델을 함께 만들고 활용하는 'AI 조선 공급망'을 구축해 K-조선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5급3특 지역성장의 실질적인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부대행사로 AI 전환을 희망하는 제조기업과 AI 솔루션 공급기업을 매칭하는 'M.AX 카라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14개 AI 공급업체와 50여 명의 제조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AI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활발한 기술 상담과 매칭을 이어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SM그룹 '총수 딸 사익편취' 심의 착수

공정위, 계열사 6곳 심사보고서 송부
딸 100% 소유사에 알짜사업 제공 혐의
총수 일가 회사에 182억 자금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SM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법인과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사(SMAMC투자대부·삼환기업·SM상선·SM하이플러스·에이치엔이앤씨·삼라미다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장장 격)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M그룹 계열사들은 총수 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에이치엔이앤씨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부를 부당하게 이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지난 2022년 12월경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



SM상선 소속 컨테이너선.

/SM그룹

기회를 에이치엔이앤씨에 통째로 넘겼다. 에이치엔이앤씨는 이 알짜 사업을 통해 분양매출액 1283억 원, 분양이익 36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아울러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상금리보다 20~30%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어준 혐의를 받는다. SM상선은 총수와 총수의 아들 소유 회사인 삼라미다스에도 초저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심사관이 산정한 이 사건 부당 자금 지원 금액은 에이치엔이앤씨 17.5억 원, 삼라미다스 164억 원 등 총 182억 원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피

심인들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 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관련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명시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스마트팜 청년인재 1000여명 배출

청년창업 보육센터 7기 통합 수료식
전국 4개 혁신밸리서 실습교육 운영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가 올해 상반기까지 총 10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2일 수료식 현장을 찾아 예비 청년 농업인들의 성과를 살피고 이들의 새출발을 응원했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충남 천안소노벨에서 열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통합 수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소통의 시간을 갖고, 교육 과정을 마친 청년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은 보육센터별 우수성과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성과도 점검했다. 또 기념식에서 7기 수료생들에게 직접 수료증을 수여하고, 보육

센터의 새로운 이정표인 '누적 수료생 1000명 달성'을 기념하는 축하행사에도 자리를 함께했다.

그는 "스마트팜 보육센터 누적 수료생 1000명 달성은 청년인재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이 만들어 낸 의미있는 성과"라며, "1000명의 수료생은 대한민국 농업이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 시설은 스마트팜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장기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보육기관이다. 전북 김제·전남 고흥·경북 상주·경남 밀양 전국 4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1412명을 선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부산항만공사, 외래종의 유입차단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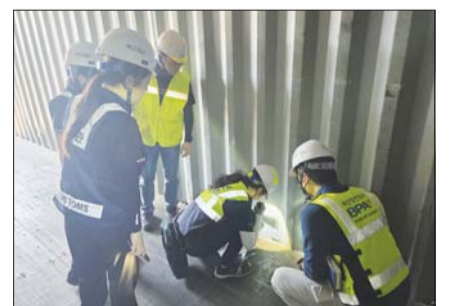
북항·신항서 수입 공컨테이너 점검

부산항만공사가 최근 '2026년 상반기 부산항 수입 공(空) 컨테이너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해외에서 반입되는 공 컨테이너를 통한 유해 외래생물(붉은불개미 등)의 국내유입 예방·안전한 항만 물류환경 조성에 목적을 뒀다.

22일 공사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지난 11~19일 기간 북항신선대부두(BPT) 및 신항 4부두(HPNT)에서 진행됐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세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국립생태원, 컨테이너부두 운영사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점검반은 공 컨테이너 내부의 생물 또는 사체 유무 등 유해 외래생물의 서식 또는 존재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내외부의 청결 상태(청소·세척)와 손상 여부(수리·교환)를 확인하는 등 불량 공컨테이너 발생 현황을 항목별로 살펴봤다.

조사 결과는 수입 공컨테이너 관리 수



부산항만공사 등 합동조사단이 '부산항 수입 공(空) 컨테이너'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준 향상을 위해 관련기관 및 부두 운영사·선사·컨·수리세척 업체 등에 공유된다.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해 온 실태조사의 누적된 조사자료와 대조·분석해, 향후 수입용 공 컨테이너 간이검사 방법의 개선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관련기관 및 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유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불량 공컨테이너를 최소화하겠다"며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 AI 활용 농어촌 미래 서비스 발굴

디지털 혁신 공모전 참가작 접수
서비스 개발·영상콘텐츠 2개 부문
18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AI)·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 및 콘텐츠 발굴을 추진한다.

공사는 '제3회 KRC(한국농어촌공사)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공모전' 참가작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이 공모전은 AI와 공공데이터를 접목한 실용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농어촌의 미래상을 제시

하는 데 목적을 둔다.

공사는 2024년부터 디지털 혁신 공모전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참가 대상과 상금 규모를 확대했다. 참가 대상은 18세 이상 국민으로 개인 또는 최대 4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서비스 개발과 영상콘텐츠 두 부문이다. 서비스 개발 부문은 공공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웹·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대상이다. 영상콘텐츠 부문은 '인공지능으로 그리는 농어촌의 미래'를 주제로 1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총 상금은 1500만 원 규모다. 서비스 개

발 부문에서 최우수상 500만 원, 우수상 250만 원이 수여된다. 영상콘텐츠 부문은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참가 희망자는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서면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발표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AI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참여형 디지털 혁신 사례를 확대하고, 농어촌 현안 해결과 미래 서비스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대학로 NO.1 여성전용 섹시코미디 쇼뮤지컬

MUSICAL

헝키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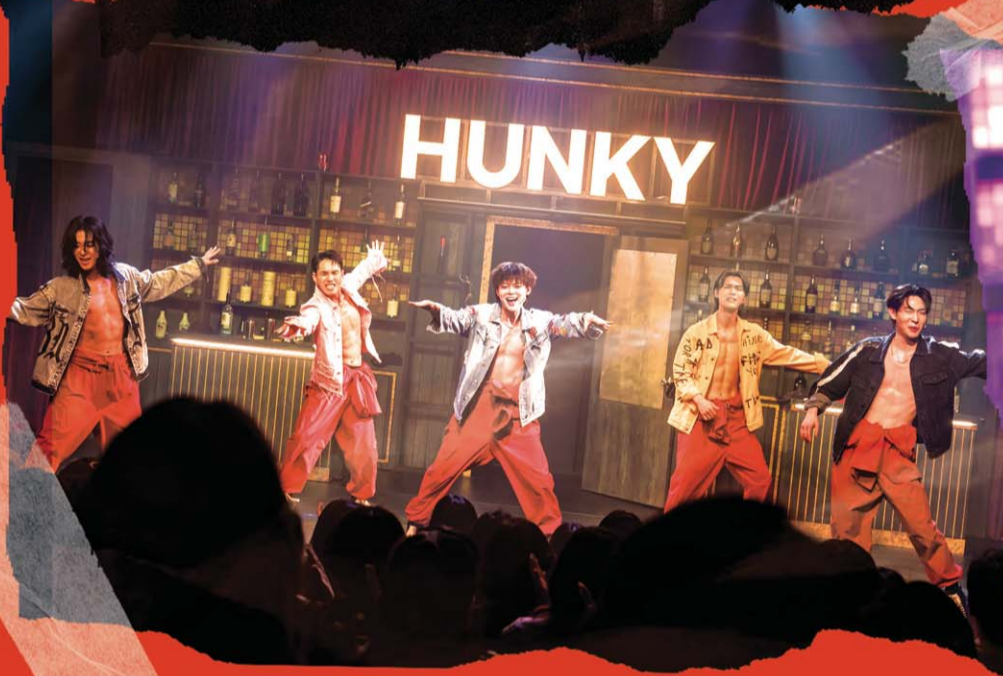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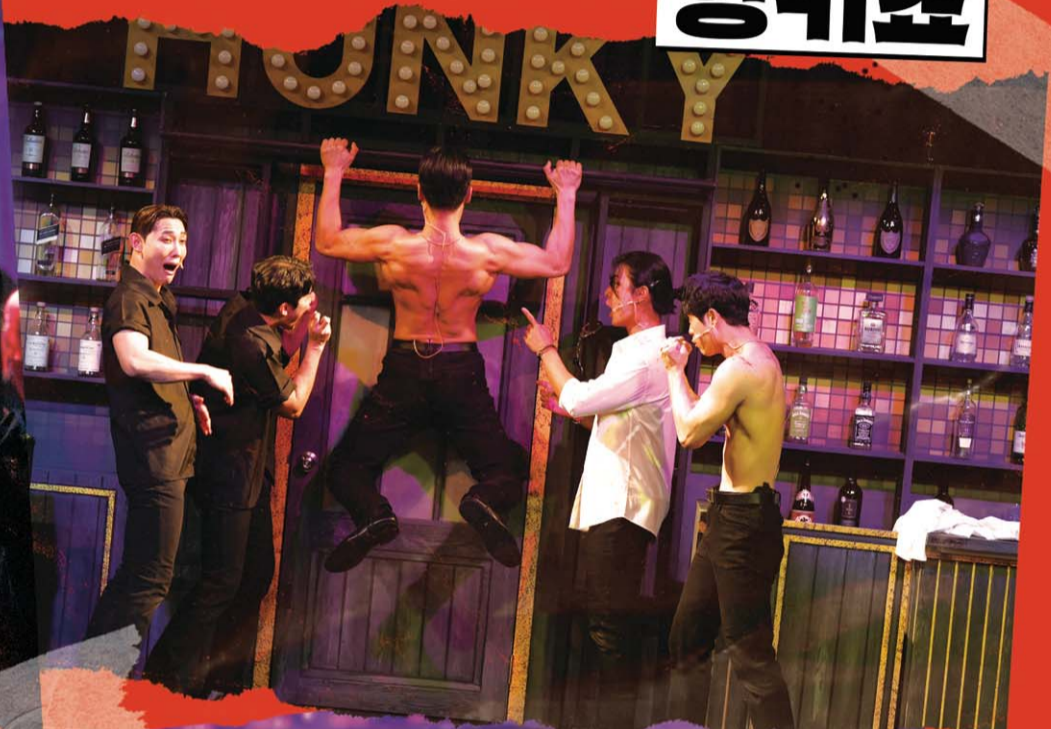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스타스태이지

본적 없던 섹시 코미디

헝키쇼



매번 다른 조합, 매일 다른 캐릭터!



관객 참여로 더 큰 재미!

<헝키쇼 NOL TICKET 리얼 후기>

NOL티켓 바로가기

| NOL 티켓 평점 10점 |

도파민 팡팡
스트레스 타파!!

soa***님 ★★★★★

스트레스 너무 만방이라 탈주해서 간 공연.
너무 재밌어서 눈물 날 정도로 웃고 잘생기고
섹시한 남자 6명이 눈호강 귀호강 시켜주는
잊지 못할 공연이었어요!! 매 공연마다 캐릭터가
바뀌는 것도 재미!! 한번만 볼 수 없는 공연이에요!!

저도 모르게 공연을 보는 내내
활짝 웃고있더라고요

a10***님 ★★★★★

사실 요즘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공연을 보는 내내 활짝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헝키쇼 덕분에 공연을 보는
그 순간에는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관객이 장면을 완성하는
참여형 쇼!

ins***님 ★★★★★

공연 끝나고 나올 땐 우울한 마음이 어디 갔는지
씩 사라져 있더라고요. 진짜 엄청 웃고 나왔습니다^^
이 공연의 가장 큰 장점은 n회차 관람해도
n번째로 새롭다는 점. 배우분들이 매일 바뀌기도 하고,
같은 배우여도 표현이나 애드립이 달라서
여러 번 본 저도 매번 새롭게 즐기게 돼요.



카메라를 켜 위 큐알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울산시, 수소 기반 굴착기 실증... 친환경 건설현장 만든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 선정
HD건설기계 등 6개 기관 협약
수소전기 굴착기 2대 현장 투입

울산시가 건설현장 핵심 장비인 굴착기의 무공해 전환 실증에 나선다.

울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에 ‘고체수소저장합금 적용 수소 기반 중대형 굴착기 실증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HD건설기계 등 6개 참여기관들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증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디젤 굴착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또 수소전기 굴착기 상용화에 필요한 작업 데이터와 안전·인증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총 4년 간 진행된다. 사업비는 166억원(국비 85억원, 시비 3억원, 민자 78억원)이 투입된다.



HD건설기계 수소전기 굴착기

핵심은 디젤 건설장비를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전기동력 기반 장비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업 주관은 동구에 사업장을 둔 HD건설기계다. 울산시, 현대자동차·기아, 한국건설기계연구원, 한양대학교, 한양테크노켄, 울산테크노파크 등 산학연 기관도 참여한다.

이번 실증에는 고체수소저장합금을

적용해 개발한 HD건설기계의 14t급 수소전기 굴착기 2대가 투입된다. 해당 장비를 활용한 현장 실증은 국내 최하다. 고체수소저장합금은 고체 금속 내부에 기체 상태의 수소 분자를 고밀도 저장하는 기술이다. 고압 기체 저장 방식보다 낮은 압력으로 운용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충전소 구축 비용도

기존 700bar급 고압 방식 대비 100bar 이하로 낮아져 약 5분의 1 수준으로 절감될 수 있다.

사업은 운행 데이터를 축적해 성능과 경제성, 안전성을 검증하는 현장형 모형으로 추진된다.

시는 수소저장합금을 적용한 수소전기 굴착기와 충전시스템의 표준·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해 세계적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 또 이번 실증이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 건설·산업기계 개발 및 상용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주 오염원인 디젤 굴착기를 대체해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최초 고체수소저장합금 적용 수소전기 굴착기 실증을 통해 건설현장의 무공해 장비 전환을 이끌겠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친환경 건설장비의 보급 확대와 수소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부산금융박물관로드’ 확대·개편

부산시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입주해 있는 금융기관의 박물관·전시시설을 연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인 ‘부산금융박물관로드’를 확대·개편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박물관(부산관)을 신규 편입하고, 운영 코스를 나이별 맞춤형 체계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금융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이별 특성을 반영한 키즈로드(미취학 아동 대상)와 마스터로드(초·중·고등학생~성인 대상)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금융 기초 개념부터 화폐·증권·자본시장·과학기술 분야까지 더 체계적이고 폭넓은 금융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사천시

내달 목욕·이미용 바우처 충전

경남 사천시가 다음 달 1일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하반기 목욕·이미용 바우처 3만 5000원을 일괄 충전한다고 밝혔다.

목욕·이미용 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으로 목욕탕이나 이미용 시설을 자주 찾기 어려운 고령층의 위생·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연간 지원금을 기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고, 분기별로 나눠 지급하던 방식을 상·하반기 두 차례 지급으로 바꿨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우수’

경남 김해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역 건강통계와 주민 건강요구도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공공보건으로 기반 확충,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 지역 건강문제에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선순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경북도교육청

라오스에 한국어 교육용 책 기증

경북도교육청은 라오스 현지 학교와 도서관 등에 한국어 교육용 책 3500여권을 기증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증 대상은 라오스의 라오-한국대학 유초등학교, 비엔티안중학교, 라오스국립대학, 라오스 국립도서관, 로고스 외국어학원 등 5 곳이다.

경북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해외 책 기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금까지 라오스와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지의 학교 23교에 1만8000여권의 책을 기증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경북·대구, 정보보호산업 기반 확장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 200억 투입
사업화 지원·융합보안 실증 등 추진

경북도가 대구시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수도권 중심의 정보보호 산업 기반을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전자산업과 연계한 정보보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북도는 대구시를 비롯해 포항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으며, 세 번째 도전 끝에 선정됐다.

대경권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각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투입해 ‘AI 로봇 특화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포항·구미의 로봇 제조 및



실증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봇과 정보보호 기술을 연계할 수 있는 점과 로봇산업 특화 보안산업 육성 계획을 제시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AI 로봇 보안 테스트베드와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을 구축하고, 정보보호 기업 육성과 사업화 지원, 융합보안 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역 로봇산업 기반과 정보보호 산업을 연계한 융합보안 생태계를 조성해 AI 로봇 보안 분야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는 “AI·로봇 산업 확산에 따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로봇 제조·실증 인프라와 정보보호 산업을 융합해 경북을 AI 로봇 융합보안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주시, ‘온라인플랫폼 판로지원사업’ 추진

제품개발 등 올해 말까지 4억 투입

경주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6년 온라인플랫폼 판로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판매 기반 구축과 유통채널 입점 지원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총 4억 원을 투입해 지역 업체 85개사 인력을 지원한다. 사업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위탁 수행한다.

지원 분야는 우수제품 개발, 쇼핑물 기획전 운영, AI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 협업 등이다. 우수제품 개발 사업은 시장조사와 컨설팅, 제품·디자인 개발, 콘텐츠 제작,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을 지원하며 지난 18일 참여기업 5개사를 선정했다.

쇼핑물 기획전은 온라인 유통플랫폼 내 경주시 전용관 운영과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개사를 모집 중이다. AI 라이브커머스는 AI 쇼호스트를 활용한 판매 방송을 지원하며 오는 30일까지 20개 업체를 모집한다.

인플루언서 협업 사업은 블로그 체험단과 숏폼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제품 홍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반기 중 10개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경주시는 하반기 라이브커머스와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라인 판매 지원을 본격화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참여기업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남, 소통창구 가동... 민선 9기 출범 만전

도민·공직자 제안 접수... 도정 반영

경남도가 다음 달 출범하는 민선 9기를 앞두고 도민과 내부 공직자들의 정책·조직 운영 의견을 받는 별도 창구를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사진) 취임 4년차에 맞춰 마련된 두 채널은 도민용 ‘민선 9기 경남도정에 바란다’와 공직자용 ‘도지사 직통 핫라인’이다. 19일 정오 기준 두 창구에 접수된 의견은 일주일 만에 155건에 이른다.

도민 창구에는 같은 시점까지 138건이 접수됐다. 분야나 형식 제한 없이 받는 자유 제안 방식이다. 주요 제안으로는 세 자녀 가구 지원 확대, 지개남산도로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확충,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 국도 5호선 거제 육상부 구간 조기 착공 등 생활 밀착형 민원과 지역 현안



이 함께 올라왔다. 공직자 대상 ‘도지사 직통 핫라인’에는 17건이 접수됐다.

내부 제안 중에서는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는 이른바 ‘오피스 빌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비롯해 결원 충원 등 인사 운영 개선, 사무전결권 하향, 체계적인 업무 인수인계 제도 마련, 출자·출연 기관 운영 개선 등이 거론됐다.

경상남도는 도민 제안을 정책화 가능성과 수용 여부를 따져 민선 9기 도정 운영에 반영하고, 공직자 제안은 즉시 조치·제도 개선·조직 문화 조성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민 창구는 26일까지, 직원 창구는 30일까지 운영된다. 직원 제안은 별도로 7월 말 ‘민선 9기 도정혁신 실행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완도군, 바다숲 조성·해조류 양식 본격화

어업인 ‘바다연금 모델’ 확대 방침

전남 완도군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주관하는 바다숲 탄소 거래 및 블루크레딧 시범사업 대상지로 고금 상정, 소안 미라·동진, 생일 금곡, 금일 동백, 신지 월부 등 6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조류가 바다숲에서 흡수한 탄소량을 정량화해 탄소 크레딧 거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

해조류 탄소 흡수량을 과학적으로 측정·보고·검증(MRV)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수익 전환 가능성을 실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아촌계 희망에 따라 금일 동백은 곰피, 신지 월부는 다시마와 미역 등 해조류 양식형, 고금 상정은 잘피 숲 성체 이식, 소안 미라는 조하대 감태 이식, 생일

금곡과 소안 동진은 조간대 갯EGI, 유용자역 살포 등 바다숲 조성형으로 사업을 펼친다.

완도군은 이달 말까지 사전 현장 점검과 초기 모니터링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바다숲 조성과 해조류 양식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모니터링 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현장 검증과 최종 심사를 거쳐 내년 7월에 블루카본 인증서가 발급될 전망이다.

완도군은 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바다 연금’ 모델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해운, 에너지, 식품 등 ESG 경영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크레딧 선 구매의 형식(LOI)을 확보할 예정이다.

/완도(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올리브영, 관광객을 단골로... 지속가능 뷰티시대 연다

방한 외국인 수요 적극 대응 언어 접근성 등 서비스 강화 "미래 K-뷰티 산업 기여할 것"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쇼핑 지도가 바뀌고 있다. 현지 소비 문화를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일상 밀착형 관광'이 새로운 유행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쇼핑 행사 주기에 맞춰 연간 수차례 한국을 재방문하는 '단골 외국인 팬덤'이 형성되는 추세다.

22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방한 외국인 수요에 적극 대응해 K뷰티 쇼핑을 고도화하며 성장 기반을 다진다. 특히 올리브영의 올영세일은 연 4회 즉 3월, 6월, 9월, 12월에 열리며 1500개 이상의 뷰티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올리브영과 국내 세금 환급 서비스 기업 글로벌택스프리(GTF)가 외국인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과 6월 연달아 한국을 방문해 올영세일에서 쇼핑을 즐



올영세일 기간 외국인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올리브영

긴 외국인이 3년 전보다 11배나 늘었다. 1년에 2회 이상 올영세일을 찾은 방한 외국인은 2023년 이후 연평균 2배씩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3회 이상 재방문한 '헤비 유저' 외국인만 해도 6200명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K뷰티를 즐기는 외국인들의 발걸음은 전국으로 다변화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더하고 있다. 올해 6월 올영세일 기간 올리브영 비수도권 매장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급증했다. 이는 서울 등을 포함한 전국 평균 성장률 4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러한 방한 외국인 증가는 올리브영의 매장 운영 전략과도 맞물리고 있다. 실제로 올리브영은 올해 들어 서울 명동, 종로 등에 특화 매장을 추가하며 글로벌 관광객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올해 3월 문을 연 '올리브영 센트럴 명동 타운점'의 경우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매장이다. 외국인 고객 맞춤형 상품 구성과 쇼핑 환경을 갖췄다. 이어 4월에 종로 광장시장에 설치한 '광장마켓점'은 한국 전통 문화까지 함께 선보이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주·부산·제주 등 주요 관광 거점에는 글로벌 특화 매장을, 경상·전라·충청권 등에는 대형 거점 매장을 집중 조성해 왔다. 해당 지역별 특색을 활용한 'K뷰티 랜드마크'를 구성해 관광과 뷰티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 핵심이다.

올리브영은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방한 외국인 중심의 충성 고객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올리브영 글로벌몰을 통해 역지구 형태로 K뷰티 소비를 이어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6월 올영세일 기간에도 올리브영 글로벌몰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 180% 이상 폭증했다. 또 올리브영 전체 매출 중 온라인 비중 역시 2024년 28.3%, 2025년 30.7%에 이어 올해 1분기 33.1%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앞으로 올영세일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인기 브랜드 기획 등을 통해 외국인 취향을 흡수함은 물론 상품 탐색, 결제 서비스, 언어 접근성 등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국내 유망 K뷰티 브랜드들이 글로벌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K뷰티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올영세일이 K뷰티를 쇼핑할 수 있는 대형 행사를 넘어 하나의 관광 콘텐츠가 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K뷰티 쇼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고객과 국내 중소인디브랜드와의 접점도 꾸준히 확보해 미래 K뷰티 산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동서식품, 프리미엄 캡슐커피 시장 정조준

카누 바리스타 중심 제품군 확대 팝업 운영 등 체험형 마케팅 강화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고품질 커피를 즐기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캡슐커피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커피업계는 전용 캡슐과 머신 라인업을 확대하고 체험형 마케팅을 강화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동서식품도 프리미엄 캡슐커피 브랜드 '카누 바리스타'를 중심으로 제품군을 넓히며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카누 바리스타는 라이트·미디엄·다크 로스트를 비롯해 다카페인, 싱글 오리진 등 총 18종의 전용 캡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유와 함께 즐기 좋은 라떼 전용 캡슐 '카누 소프트 하모니'와 카누 포스테 앙상블'을 출시했으며, 싱글 오리진 라인업에는 '브라질 세하도'를 추가했다. 브라질 세하도는 열대우림동맹(RA) 인증 원두를 사용한 제품으로 견과류와 초콜릿 풍미를 강조했다.



카누 바리스타 캡슐 싱글 오리진 브라질 세하도. /동서식품

올해 6월에는 아이스 커피 수요 확대에 맞춰 카누 라이블리 브리즈'와 카누 인피니트 피크'를 새롭게 선보였다. 라이블리 브리즈는 라이트 로스팅을 적용해 산뜻한 산미와 베리류 향미를 살렸으며, 인피니트 피크는 깊은 바다감과 견과류 풍미를 앞세워 아이스로도 진한 커피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전용 머신도 아메리카노 추출에 초점을 맞춰 개발했다. 기존 에스프레소 캡슐보다 많은 9.5g의 원두를 담아 풍부한 맛과 향을 구현했으며, 에스프레소와 물을 각각 별도 노즐에서 추출하는 '듀얼 노즐 바이패스' 기능을 적용했다. 아이스 전용 버튼도 탑재해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간편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했다. 머신은 디자인과 크기에 따라 '어반', '브리즈', '페탈' 등 다양한 모델로 운영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동서식품은 소비자 체험 기회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 서울 북촌에서 카누 캡슐 테일러'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캡슐 시음과 취향 추천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스타필드 하남에서는 호환 캡슐을 주제로 한 팝업 행사를 진행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캡슐 제품과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프리미엄 캡슐커피 시장 공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J프레시웨이, 고객사 경쟁력 강화 지원

'프랜차이즈 그로스 데이' 성료

CJ프레시웨이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장 변화 대응 전략과 브랜드 성장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대상 세미나 '프랜차이즈 그로스 데이(Franchise Growth Day)'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사에는 한식·카페·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프랜차이즈 관계자와 1인 사업자 등이 참석했으며, 시장 트렌드 강연과 브랜드 운영 전략,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프랜차이즈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의 장순식 컨설턴트는 '대표님이 알아

야 할 2026 외식 시장 흐름'을 주제로 정책 변화와 시장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CJ프레시웨이 외식컨설팅팀은 브랜드 기획부터 메뉴 개발, 운영 전략, 식자재 유통·관리까지 프랜차이즈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강연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매출 확대와 인력 운영, 출점 전략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됐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외식업의 창업기부터 성장기, 성숙기까지 사업 단계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사와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사업 전략을 제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식 사업자의 성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백 강남점, '카테고릭' 매장 오픈

스페셜티 브루잉 기반 커피 브랜드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 11층 전문식당가에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카테고릭(Categorique)'을 새롭게 열고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식음 경험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카테고릭은 스페셜티 브루잉을 기반으로 한 커피 브랜드다. 단순히 음료를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고객들이 자신의 취향과 감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브랜드명에는 각기 다른 취향 속에서 자신만의 선택을 찾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대표 메뉴로는 로열밀크커피를 비롯해 푸어오버 커피, 바닐라라떼, 콜린크림커피 등을 선보인다. 프렌치토스트와 타라미수 등 자체 제조 디저트도 함께 운영한다.

카테고릭은 점포별 특성과 상권에 따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1층에 새롭게 오픈한 카테고리릭 카페 매장 사진. /신세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향후 신규 출점 및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는 고객 특성과 지역 상권에 맞춰 공간 구성과 메뉴, 콘셉트를 차별화할 예정이다. 또한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 대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로 운영해 고객 접근성을 높였다.

/김서현 기자 seoh@

하이트진로음료, 진로토닉몰 '내일온' 도입

하이트진로음료가 공식 온라인몰 '진로 토닉몰'에 익일 배송 서비스 '내일온'을 도입하며 배송 편의성을 강화한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진로토닉몰에서 빠른배송 서비스 '내일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내일온은 오늘 주문한 상품을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무알코올 음료와 토닉워터 등 일부 상품을 대상으로 운

영된다.

회사는 고객이 상품을 고르는 단계부터 배송 가능 여부와 주문 마감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했다. 상품 목록에는 빠른배송 대상 상품을 표시하는 '내일온' 배지를 적용했으며, 상품 상세페이지와 장바구니, 주문·결제 단계에서도 배송 정보와 주문 마감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원선 기자

지그재그, 직진배송 주말 거래액 30% ↑

지그재그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직진배송 주말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직진배송은 밤 10시 전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빠른 배송 서비스다.

지그재그는 지난해 4월 해당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하며 주 7일 배송체계를 구

축했다. 아울러 직진배송 상품도 확대했다. 올해 5월 기준 직진배송 상품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

그 결과 올해 1~5월 직진배송 전체 거래액 가운데 주말 거래액 비중은 약 26%로 집계됐다. 전같은 기간 직진배송 전체 거래액도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김서현 기자

세븐일레븐 뷰티 상품 라인업 확대

세븐일레븐은 오는 24일부터 글로벌 캐릭터 에스더버니와 협업한 아이메이크업 제품과 뷰티 소도구, 원료 중심 스킨케어 브랜드 믹스 제품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에스더버니 아이메이크업 시리즈는 리퀴드 아이라이너와 아이브로우 등 총 7종으로 구성됐다. 제품은 에스더버니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오는 24일부터 뉴웨이브 점포 20여 곳에서 먼저 판매된다.

또한 아이새도우, 파우더, 블러셔, 하이라이터 등 다양한 메이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브러쉬 5종으로 구성된 브러쉬 세트도 함께 선보인다. 점포에는 전용 진열대와 테스터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HLB그룹, 간암·담관암 글로벌 신약개발 속도

‘리보세라닙’ 승인발표 D-30

내달 23일 美 FDA 승인여부 결정 캠패라주담 CMC 미 실시 우려에 ‘별도 설명·통보 사항 없어’ 선 그어 CRL 요구내용 보완 등 준비 마쳐 오는 9월 ‘리라푸그라티닙’ 결과

간암 치료제 후보물질 ‘리보세라닙’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HLB그룹에 제약 바이오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HLB그룹은 우선 리보세라닙 허가 과정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을 완벽히 보완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담관암 신약 승인, 대형 임상 결과 등으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2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LB그룹은 현재 미국 FDA에서 세 번째

도전 절차를 밟고 있다. HLB의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캠패라주담 병용요법’은 간암 1차 치료제로, 오는 7월 23일 미국 FDA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9월, 2025년 3월 각각 서류 보완 요구서한(CRL)을 수령하면서 미국 승인이 두 번이나 불발된 바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승인 일정을 감안했을 때 이미 진행되었어야 할 캠패라주담에 대한 화학합성·공장생산·품질관리(CMC) 현장 실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HLB그룹 측은 공식 안내를 통해 “현재까지 캠패라주담 CMC 실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와 관련해 FDA로부터 별도의 설명이나 통보를 받은 사항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 파트너사인 항서제약 역시 지난해 CRL에서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HLB그룹은 오는 하반기 리보세라닙을 시작으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오는 9월 27일 내에는 담관암 2차 치료제 후보물질 ‘리라푸그라티닙’에 대한 신약허가 본심사 결과가 나온다. 리라푸그라티닙은 이미 FDA로부터 허가의약품 및 혁신치료제로도 지정받아 우선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HLB는 담관암 승인을 앞두고 리라푸그라티닙 적응증 확대에도 본격 착수해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높인다.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최근 국내 삼성서울병원에서 ‘리라푸그라티닙’을 암종분류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 임상 2상’ 첫 환자 투약을 개시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모뎀 암센터를 통해 환자 등록 및 투약을 진행한다.

‘암종분류 치료제’는 암이 발생한 장기와 관계없이 특정 유전자 변이(FGFR2)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는 정밀의료 기반 항암제다. 최근 글로벌 항암 분야가 암종 중심에서 ‘유전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차세대 치료법’이 부상하고 있다. HLB는 리라푸그라티닙 역시 담관암을 포함해 다양한 고형암 전체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LB그룹 측은 “리라푸그라티닙을 FGFR2 변이를 정밀하게 겨냥하는 차세대 표적항암제로 개발하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공들여온 리보세라닙 간암 신약의 결실을 보는 동시에, 담관암 신약 허가, 차세대 암종분류 항암제 임상 가속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결정짓는 분수령을 맞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유통업계, 여름맞이 ‘분주’

한국피앤지

“여름철 화장실 냄새 페브리즈로 향기롭게”

한국피앤지는 여름철 화장실 냄새 고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페브리즈 비치형 화장실용 ‘신규 향 3종’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향은 프레쉬 포레스트, 시트러스, 다우니 에이프릴 등 3종이다. 프레쉬 포레스트는 청량한 숲속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시트러스는 상큼함과 깔끔함을 전달한다. 다우니 에이프릴은 다우니 특유의 깨끗하고 포근한 향을 표현하고 있다.

페브리즈는 프레쉬 스카이, 라벤더 부케, 다우니 클린코튼 등 기존 3종에서 총 6종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다양한 소비자 취향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크리스피크림 도넛

과일·민트·소다 활용 여름 시즌 신제품 5종



크리스피크림 도넛이 여름 시즌을 겨냥해 과일과 민트, 소다를 활용한 시즌 한정 도넛을 선보이며 여름 디저트 수요 공략에 나섰다.

청량한 맛과 시원한 비주얼을 앞세운 신제품으로 계절 마케팅을 강화한다.

롯데GRS가 운영하는 크리스피크림 도넛은 여름 시즌 신제품 ‘Summer Refresher(썸머리프레셔)’ 5종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제품은 ▲밀키 소다 캔디 ▲COOL 초코 ▲샤이니 오렌지 ▲스위트 아시아 베리 ▲프레시 키위 등 5종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 건설 완료

총 12만 리터 항체 의약품 생산시설 고수율 세포배양 등 최신 공정 적용 ‘듀얼 사이트’ 전략으로 통합 CDMO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 바이오 캠퍼스내 제1공장의 주요 건설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2024년 착공 이후 약 2년 만의 성과다.

바이오 생산시설은 복잡한 세포배양 공정과 글로벌 cGMP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설계·시공 역량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요구된다. 이때문에 이번 사례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건설 프로젝트 가운데서도 매우 빠른 수준의 사업 추진 속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송도 1공장 건설 과정에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의 운영 경험과 제조 노하우를 적극 반영했다. 설계 단계부터 자동화된 제조관리 시스템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 전경.

(MCS) 및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용해 주문부터 제조, 품질 검증까지 윈스톱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 대응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제1공장은 총 12만 리터 규모의 항체 의약품 생산시설로 1만5000리터 규모의 스테인리스 스틸 배양기 8기를 기반으로 대규모 상업 생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

록 구축했다. 또한 고수율 세포배양과 류배양 등 최신 바이오 공정 기술을 적용했으며, 자동화 물류창고와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미국 뉴욕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와 연계한 ‘듀얼 사이트’ 전략을 통해 초기 임상 생산부터 대규모 상업 생산까

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위탁개발 생산(CDMO)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가 글로벌 고객의 초기 프로젝트와 임상 물량을 지원하고, 송도 1공장이 대규모 상업 생산을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듀얼 사이트 연계를 통해 고객사들은 개발 단계와 상업화 단계 간 기술 이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운전과 생산 시스템 검증(Validation)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시러큐스와 송도를 연결하는 통합 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의 다양한 개발 및 상업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세계적인 CDMO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오스템임플란트, 인테리어 사업 본격화

치과·메디컬 2000호 수주 돌파

오스템임플란트가 치과와 메디컬 분야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전개하며 신성장 동력을 다지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로 최적의 공간을 설계하며 차별화에 성공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 및 메디컬 인테리어 사업을 본격화한 지 9년 만에 누적 2000호 수주를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2023년 1000호점을 돌파하고 다시 3년 만에 1000호점을 추가하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호실적에는 다수의 치과와 협업체 축적한 빅데이터와 전문성이 주효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의료진 및 스태프의 동선은 물론 진료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공 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자재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시공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식 설립 인가를

받은 ‘인테리어 연구소’도 별도 운영 중이다. 해당 연구소는 재료, 전문 수납 시스템, 유해물질 차단, X-ray 노출 최소화 등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또 경기 김포에 약 900평 규모의 가구 공장을 운영하고 가구 제작, 시공 자재 생산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 자재 대기업들과도 제휴를 맺어 품질을 높인다.

빠른 시공 속도 역시 오스템임플란트 인테리어 사업의 성장 요소로 꼽힌다. 디자인 및 설계 표준화를 통해 주요 자재와 가구를 사전 제작하고 현장 공정을 설치·조립 중심으로 단순화했다.

그 결과, 과거 50평 규모 치과 기준 5주 이상 소요되던 공사 기간을 30% 이상 단축했다. 현재는 2주 이내로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를 줄여 시공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일동제약그룹, ‘비대면 섬 닥터’ 동참

해수부 추진 ‘어촌 복지 버스’ 일환 새로엠에스, 섬에 ‘새로닥터’ 설치

일동제약그룹은 종합헬스케어 플랫폼 회사 새로엠에스가 ‘비대면 섬 닥터’ 시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어복 버스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어촌 복지 버스’ 일환으로 어업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생활 편의를 돕는 사업이다. 섬과 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식품·생활·행정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조달·공급한다.

우선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의료 기관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섬 지역 어업인들에게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적시에 효과적인 상황 대처가



새로엠에스의 비대면 진료 통합 장비 ‘새로닥터’를 이용하고 있다. /일동제약그룹

가능하고 관할 지자체에 속한 병원 및 약국과도 연계할 수 있다.

새로엠에스는 의사가 없는 어업인 거주 섬 지역에 자사의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 ‘새로닥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200개소 이상을 구축하고 새로닥터 설치 지역과 제휴할 의료 기관 및 약국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등 제반 작업을 병행한다. /이청하 기자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2026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2026년 7월 6일 ~ 2027년 1월 7일



모집 개요

과정명: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교육기간: 2026년 7월 6일 - 2027년 1월 7일
교육시간: 월~금, 09:00 ~ 18:00
교육장소: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교육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메타빌드 제2사옥 4층
상담 문의: 010-5155-8299

지원 자격 및 혜택

학력·전공 무관! 비전공자 및 인문계열도 기초부터 입문 가능
우대 사항: Python, Java 등 프로그래밍 기초 수강생 우대
추천 대상: IT/빅데이터/AI/ITS/데이터엔지니어 직무 취업 희망자
교육비 혜택: 총 수강료 40만원(훈련장려금 매달 수령 가능)

주요 교육 내용

총 1,000시간 중심의 실무 및 프로젝트 교육

AI 서비스 연계기술(ESB/API/MCP/A2A), Node.js/Express 기반 웹 응용
 Python/JAVA/바이트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RESTful API 설계
 React 기반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베이스 및 GIS 기반 데이터 처리
 생성형 AI-GPT·LLM 실무 교육, 디지털트윈 서비스 구현 등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메타빌드 AI-클라우드-데이터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산대특 4기 - 홈페이지 신청 (QR코드 연계)



수업과정
상세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GS칼텍스, 다문화·유소년 축구 교류의 장 마련

GS칼텍스가 다문화·일반 유소년이 함께하는 축구 교류 행사를 열고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GS칼텍스는 지난 21일 수원 박지성 축구센터 키스파크(kixx Park)에서 '드림에너지' 행사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GS칼텍스



이노비즈협, 스마트팩토리 구축 노하우 공유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비누스대학교 알람수트라 캠퍼스에서 '2026년 제1회 한-인니 스마트팩토리 기업 협력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전략과 도입 우수사례를 전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2026년 한-인니 스마트팩토리 기업 협력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효성, 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에 1억 후원

효성이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며 호국보훈 정신 실천에 나서고 있다. 효성은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육군본부에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왼쪽부터)이정원 효성 전무, 이우현 육군인사사령관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효성



한림대의료원, 환자·보호자 안전 위한 재난훈련

한림대학교 의료원이 환자는 물론, 보호자와 교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중점을 두며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자위소방대원들이 피난구조용 하강장치를 활용해 안전하게 대피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한림대학교 의료원



삼양식품, '스핀들 트레일 런 2026' 성료

삼양식품은 지난 21일 강원도 평창군 삼양라운드힐에서 '스핀들 트레일 런 2026'을 개최했다. 7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트레일 러닝 행사를 개최하며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의 인지도 제고에 속도를 낸 것이다. 스핀들 트레일 런 2026 참가자들이 강원도 평창군 삼양라운드힐에 마련된 코스에서 역주하고 있다. /삼양식품

대학생이 만드는 SKT 서비스 혁신... 'CX 캠퍼스' 운영

고용노동부 총괄 프로그램 일환 8주간 서비스 개선 방안 도출

SK텔레콤이 대학생 고객을 대상으로 소통 강화에 나섰다.

SK텔레콤은 'CX 캠퍼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8주간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행사다. 고용노동부 총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지원·운영하는 '미래내일경험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SK텔레콤은 대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서비스 개선점을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SK텔레콤의 고객가치혁신·마케팅·보안 업무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해 서비스 개선안을 도출한다. SK텔레콤은 대학생들이 통신 분야 실무를 경험하고 실무자 멘토링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젝트 주제는 ▲플래그십 마



대학생들이 'CX 캠퍼스' 프로그램에서 SK텔레콤 임직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SK텔레콤

팅·보안 업무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해 서비스 개선안을 도출한다. SK텔레콤은 대학생들이 통신 분야 실무를 경험하고 실무자 멘토링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젝트 주제는 ▲플래그십 마

트폰 마케팅 ▲T로밍 이용 확대 ▲보안 경험 강화 ▲오프라인 매장 이용 개선안 등이다. 참가 대학생들은 회사 측 실무자들과 시장 분석, 고객 수요 조사, 주요 사례 분석, 개선방향 도출 및 실행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행

아이템을 제안하는 과정을 거친다.

매주 점검 미팅을 거쳐 오는 8월 열릴 최종 발표회에서 서비스 개선안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의 이해연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이번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단순 인턴십 경험과 달리 대학생들이 SKT 직원들과 팀을 이뤄 실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개선해 고객이 SKT의 변화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LG전자, AI·초고화질로 북미 공략

라스베이거스 '인포컴 2026' 참가 글로벌 기업간 거래 영향력 확대

LG전자가 북미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대형·초고화질 기술과 AI·소프트웨어 역량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간거래(B2B) 분야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열린 '인포컴 2026'에 참가해 '디스플레이 너머의 솔루션'을 주제로 다양한 상업용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LG전자의 초대형·초고화질 기술이 적용된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LG 매그니트'는 설치와 디지털 사이니지 부문에서 '인포컴 최고 제품상' 위너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북미 AV 매체인 SCN에서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초고화질, 화면 확장성, 설치 편의성 등이



LG전자가 북미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인포컴 2026'에서 'LG 매그니트' 등 다양한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선보였다. /LG전자

뛰어나 전시장, 대형 강당 및 회의실, 프리미엄 매장, 방송국, 상형실 등 다양한 공간에 최적이다.

LG전자는 이 외에도 미팅룸, 상업 공간, 야외 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맞춤형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제시했다. 또 미국 정부 고객 수요에 맞춰 미국의 무역협정법(TAA) 규격을 충족한 디스플레이 라인업도 전시했다. 이와 함께 자체 상업용 디스플레이 운영·관리 통합 플랫폼 'LG 비즈니스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대거 선보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NH농협은행, KAI와 금융협력 강화

3년간 총 1조 규모 금융 지원

NH농협은행은 중구 소재 본사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K-방산 및 항공우주산업의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미래전략산업인 방산·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과 금융의 동반 성장을 통해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전투기·헬기 등 군수 분야를 비롯해 민간 항공기 기체 구조물 제작, 위성 개발 등 항공우주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대표 항공우주기업이다. 국산 항공기 개발과 해외 수출 확대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강태영 NH농협은행 은행장(오른쪽)과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3년간 총 1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 개발, 시설투자, 해외시장 확대 등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춘 금융지원을 제공해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강태영 NH농협은행 은행장은 "앞으로도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 지원을 확대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최등급 "대보 저력으로 성장 이어가자"

(대보그룹 회장)

창립 46주년 기념식

'지속성장·나눔' 가치 되새겨

대보그룹이 창립 46주년을 맞아 지속 성장 의지를 다졌다.

대보그룹은 지난 19일 서울 송파 청소년수련관에서 본사와 현장, 사업소 임직원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6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최등급 대보그룹 회장은 창립기념사에서 지난 5월 열린 서원밸리 자선 그린콘서트를 언급했다. 그는 "서원밸리 자선 그린콘서트는 누적 관람객 67만명에 육박하며 성료했다"며 "그린콘서트의 핵심 가치는 골프장에서 가장 소중한 잔디를 내어주는 나눔의

정신과 26년간 꾸준히 이어온 지속성"이라고 강조했다.

서원밸리 자선 그린콘서트는 골프장을 무료로 개방해 가족 단위 관람객이 잔디 위에서 공연을 즐기고 기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행사로, 올해 22회를 맞았다.

최 회장은 이어서 "대보그룹도 지속 성장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며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대보만의 저력으로 올해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대보그룹은 1981년 대보실업 설립 이후 건설·유통·정보통신·레저 부문으로 사업을 넓혀왔으며 현재 임직원 약 4000명, 매출액 약 2조2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HS효성, 박찬중 선수와 '가치 나눔'

의족 개발 지원하고 북콘서트 개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강조해온 '가치경영'이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박찬중 선수의 도전과 만나 결실을 맺고 있다.

HS효성은 지난 17일 서울마포본사 지하 1층 강당에서 HS효성첨단소재 엠베서더 박찬중 선수의 북콘서트 한계를 넘어, 가치 또 같이'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행사는 HS효성 창립 2주년·창업 60년을 기념해 박 선수의 도전과 회복의 여정을 임직원들과 공유하

고, HS효성첨단소재의 첨단소재 기술이 사람의 가능성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HS효성첨단소재는 박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사이클 전용 의족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HS효성첨단소재 탄소소재PU 및 복합재료연구팀은 전북대학교 탄소의료기기센터와 협업해 박 선수의 신체 특성과 주행 환경에 맞는 의족 소켓 제작을 추진했다.

/차현정 기자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전보 ▲녹색전환정책관실 기후에너지 환경교육팀장 김태훈 ▲물관리위원회지 원단 심의지원소통팀장 기대정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정지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효식 ▲기업거래정책과장 이선희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 담당관 이하나 ▲조사총괄담당관 문종숙 ▲공시점검과장 양동훈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교육활용과장 박정섭 ▲문화유산국 역사유적정책관 실 역사유적정책과장 장구연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장 박근용 ▲공능유적본

부 경북공관리소장 김태영 ▲국립무형유산원장 길태현 ▲헌춘사관리소장 송인현

부음 ▲황효남씨 별세, 양동훈(전 대전지방국세청장)씨 장인상=2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 35호실, 발인 24일 오전, 장지 파주하늘나라공원. 02-3010-2000

▲유희일(대전대 학교법인 해화학원 이사장)씨 별세, 이상천씨 배우자상, 유정민·채영·채선·영미·경숙씨 부친상, 이상호·김동환·유계원·이기영씨 장인상= 22일 삼육서울병원 추모관 1호, 발인 24일 오전 6시 30분. 02-2215-4444.



신뢰의 100년 약속의 100년

신뢰로 쌓아온 100년 위에 책임을 더해,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길.
다음 100년을 향한 유한양행의 약속입니다.



사냥꾼에게도 뜨거운 피가 흐를까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최근 흥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둘러싸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 간의 공방이 뜨겁다. 메리츠금융은 흥플러스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조건으로 MBK 김병주 회장의 개인 지급보증을 요구했고, MBK는 난색을 표하며 대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MBK가 수조 원대의 펀드 수익과 수천억 원의 보수를 챙기면서도, 막상 파인수 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을 때는 직접적인 현금 투입이나 책임 있는 자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공방은 단순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사모펀드(PEF)가 가져야 할 '책임 경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사모펀드는 본래 낙후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긍정적 기능을 표방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들이 즐겨 쓰는 레버리지드 바이아웃(LBO) 방식은 인수 대상 기업에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우기 일쑤다. 흥플러스 역시 인수 이후 점포 매각과 자산 유동화가 반복되면서 체질 개선은커녕 고용 불안과 기업회생절차라는 파국을 맞았다. 위험은 파인수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시장에 떠남이 고수익만 독식하는 구조, 이것이 거대 투기자본이 마주한 민낯이다.

수익 추구가 존재 목적인데도, 사모펀드 역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기도 하다. 자본의 이동과 투자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투자의 과실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면, 투자 실패나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수십조 원의 운용자산을 굴리며 전문 학적인 부를 축적한 글로벌 펀드가, 자신이 책임지던 기업의 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에는 지갑을 닫는 행태는 결코 '합리적 투자'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될 수 없다.

사모펀드의 단기 수익 극대화와 무책임한 경영 방식에 대한 경종은 이미 국경을 넘어 울리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자국 정밀공작기계 기업 마키노밀링에 대한 MBK의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해 외환 및 외국무역법을

근거로 가로막았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역시 행동주의 및 사모펀드가 중장기 성장을 저해한다는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반도체·배터리 공급망의 핵심인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번지며, 사모펀드의 무차별한 침탈로부터 국가 전략산업과 산업안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고 있다. 고려아연 노조와 흥플러스 노조의 연대 성명은 투기자본의 무책임함이 한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어떻게 흔드는지 보여주는 절박한 호소다.

자본은 차갑지만, 그 자본이 작동하는 사회는 인간의 삶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사모펀드가 단기적인 엑시트만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다면, 결국 시장과 공동체로부터 외면받는 '악탈적 자본'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 사모펀드도 사회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자신들의 투자 행위가 낳은 결과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구조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정부와 입법부 역시 이들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 경영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어벽과 '악탈적 사모펀드 방지법'과 같은 규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치부장 yh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3일 (음 5월 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60년생** 주의 깊은 통찰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2년생** 원하는 일은 빨리 이루어집니다. **84년생**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 49년생**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61년생** 사리사욕을 채우지 마세요. **73년생** 환경을 극복하는데 가장 쉬운 길을 택하세요. **85년생** 가족에게 배움점이 많습니다.
- 50년생**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여진 사람과 대화하세요. **62년생** 여유를 갖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74년생** 주관이 뚜렷하지 못합니다. **86년생** 뒷사람의 조언을 받으세요.
- 51년생** 주관을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63년생**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75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87년생** 인생에 쉬운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 52년생**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64년생** 동업자에게 한발 양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76년생** 오해가 없도록 말을 조심하세요. **88년생** 일이 차차 해결 될 것입니다.
- 53년생** 모든 것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세요. **65년생**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77년생**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89년생** 안정을 취하며 조금 여유를 갖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54년생** 결국 귀하가 하기 나름입니다. **66년생** 가족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78년생** 다른 사람들이 쉽게 따르지 못합니다. **90년생**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 55년생** 명량한 마음으로 잠깐 기다려 보세요. **67년생** 외출하면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79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91년생** 언제나 말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 56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합니다. **68년생** 크게 형통할 운입니다. **80년생** 귀인이 귀하를 돕는 운세입니다. **92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57년생**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69년생** 큰 일을 꾸꾸지 말고 분수를 지키세요. **81년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해결책이 보입니다. **93년생** 과속에 주의하세요.
- 58년생**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격입니다. **70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82년생** 안정을 취하고 힘을 비축 하세요. **94년생** 건강에 유의 하세요.
- 59년생**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71년생** 귀인은 동쪽으로 가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83년생**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95년생** 밖으로 나가세요.

산업계 깊은 한숨... 노란봉투법 명확한 기준 필요해



양 성 운
(산입부)

“원청에 하청까지 1년동안 협상만 해야하겠네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잇달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바라본 산업계 인사가 아같이 말했다. 산업계는 사용자성 인정 자체보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짐작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물론 포스코, 한화오션 등 제조기업 전체가 구내식당 노동자, 공장 경비, 보안직원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노동당국의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15일 하청 노조 10개 지회의 교섭 요구를 공고하는 시정 명령이 내려

진 상황에서 원청 정규직인 현대차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어 포스코는 지난 17일 재심 신청 사건에 하청 노조 3곳과 개별 교섭해야 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초심 결정을 유지하는 답변을 받았다.

산업계는 이같은 사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하청업체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제조업 특성상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넓어질수록 동시다발적인 교섭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사실상 1년 동안 원·하청과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 1151곳이 원청 434곳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수치는 해마다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하청업체 직원이라도 원청이 임금, 근무시간, 인사, 작업지시 등 근로조

건에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할 경우 공동사용자로 인정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 판례를 통해 공동사용자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사 간 공정한 분배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한다는 건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제조업 현장의 구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된다. 향후 원청이 사용자성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협력사 구조를 단순화하거나 기존 제조업 현장 구조를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 채용 축소와 투자 유보에 이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대기업 교섭 의무가 제조 공정 외 영역으로 확산될 경우 경영계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어느선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점은 필요하다. /ysw@

김상회의四季

정치와 달인



얼마 전 지방선거가 끝났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여러 가지 말을 남긴 했지만 국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기회를 실천했다. 살다 보면 정치는 국가경영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동서양의 역사를 되돌아보자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민심을 잘 읽으며 사명감이 있는 지도층이 있는 나라들은 부흥을 이루었다. 합일된 공동 가치관이 성립된 나라들이 의식 있는 민도를 높이면서 경제며 문화발전을 이루었다. 여기에는 비전과 식견을 지닌 뛰어난 리더, 즉 지도자가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이런 의미에서 두루두루 여러 방항에서 사람들을 순방향으로 이끌고 향상하는 분야는 누가 뭐래도 정치 분야가 될 것이다. 작은 조직이나 큰 단체든 어디에서나 지도자가 중요하며, 전근대적인 시대에서는 왕은 하늘의 명을 받은 자라는 '왕권신수설'까지 있게 된 것이다.

누군가는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 라고 하였지만, 정치(政治)란 사전적 의미로는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지배계층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의미한다. 과거의 전통적인 전제주의 국가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시민의 정치 참여가 늘어난 다원화 시대에는 정치는 국민이 개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기에 말 그대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선거일지도 모르겠다. 민주주의 근간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집단 안에서의 권력 관계, 의사 결정 과정, 이해관계 조정 같은 모든 활동에 있어 지도자의 역할은 나라나 그 단체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어떤 지도자를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과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를 열망하면서 지지체장을 뽑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3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4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학생 줄어도 운영비 여전”... 교장단체,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정부, 초과세수 산정방식 개편 논의 교장단체 “학령인구만 본 축소 안 돼” 인건비·시설관리비 등 고정비는 여전 디지털 전환·돌봄 등 교육 수요 확대



/유투이미지

올해 대규모 초과 세수 전망을 계기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나선 가운데, 전국 교장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와 미래 교육 수요를 외면한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전국 1만2000여 공·사립 초·중등·특수학교를 대표하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 대한사립학교총회 등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의무교육 재정의 확보와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1971년 제정된 제도다. 1958년 의무교육 재정부담과 1963년 지방교육교부세를 통합해 마련됐으며, 이후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착수한 것은 올해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시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

원으로 하는데, 세수가 늘면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교부금 규모도 자동으로 증가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재정만 계속 확대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실제 비용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 등 고정성 비용은 그대로 발생하고, 디지털 교육 전환과 돌봄 확대,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지원 등 미래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교장단체들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어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정 비용은 쉽게 줄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은 학생 개인이 아닌 학교 단위로 지출되는 예산인 만큼 학생 수 감소만으로 재정 규모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 돌봄

확대, 고교학점제 안착, 특수교육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맞춤형 인프라 확충,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현장의 재정 수요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장단체들은 “저출생 심화와 AI·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단기적 효율성에 매몰돼 교육 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정부와 재정부에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축소 추진 중단 ▲학령인구 감소만을 내세운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전면 재검토 ▲학교 현장의 고정 비용과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필요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보장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교육재정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이주배경학생 진학 정보 장벽 낮춘다

서울시교육청, 대입 맞춤형 설명회 한국어 어려운 학생에 AI 통역 지원 학교 찾아가는 진로·진학 등 컨설팅

서울시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 대상 진로·진학 지원을 확대한다. 입시 설명회에 AI 동시통역을 제공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해 언어·정보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의 진학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7 대입 대비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진학 설명회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이주배경학생 지원 부스 운영 등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지역 이주배경학생은 2025년 4월 기준 2만2002명으로 전체 학생의 2.95%를 차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2027 대입 대비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진학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되며, 등록은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다. 1부에서는 대학별 이주배경학생 대상 전형과 2027 대입전형,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전형, 외국인전형 등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학생 유형별 진학 경로와 지원 가능 전형, 한국어능력·학업역량·진로 설계 등을 고려한 진학지도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AI 동시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7월부터 10월까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도 운영한다. 신청 학교 중 선정된 학교에

전문가가 방문해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생에게는 진로 탐색, 교과 선택, 학생부 관리, 1대1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학부모에게는 한국의 진학 체계와 입시제도 상담을 제공하고, 교원에게는 이주배경학생 진학지도 연수와 컨설팅을 실시한다.

7월 14~15일 열리는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는 이주배경학생 지원 부스가 마련된다. 부스에서는 다문화 진로·직업 정보 전시와 외국 국적 학생의 체류자격을 고려한 진로·진학 상담이 진행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흥행

출시 2년 만에 가입자 200만 명 걷기·대중교통 등 생활 실천 확산

경기도가 2024년 7월 선보인 모바일 앱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가입자가 출시 약 2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실천 활동에 보상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이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탄소감축 성과와 연계해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이 앱은 출시 2주 만에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25년 2월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번에 200만 명 고지를 달성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가입자들이 그동안 앱을 통해 실천한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

전거 이용, 텀블러 사용, 줄기 참여 등의 활동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는 약 63만 톤에 달한다. 이는 나무 약 5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장려하는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생활 속 작은 행동을 지속 가능한 기후행동 문화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가입자 200만 명 달성을 기념해 도민 참여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앱을 통해 축하 메시지와 정책 참여 소감을 남긴 참여자 가운데 200명을 선정해 편의점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도민 의견과 참여 경험을 향후 사업 운영과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화성특례시, 나들이 명소 ‘용건릉’ 추천

용릉~건릉 숲길 30일까지 개방 정조 효심 깃든 세계유산 조선왕릉



용건릉 숲길.

/화성특례시

초여름의 푸르름이 짙어지는 6월, 역사와 자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산책길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화성특례시가 이달의 나들이 명소로 추천한 용건릉(용릉~건릉)은 정조대왕의 효심과 조선왕실의 역사가 깃든 세계유산이자, 울창한 숲길과 천연기념물이 어우러진 문화유산 공간이다.

화성시 안성동에 위치한 용건릉은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의 하나로, 조선 왕실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인

정받아 2009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용릉은 추존 장조의황제인 사도세자와 헌경의황후 홍씨를 모신 능이며, 건릉은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와 효의선황후 김씨의 능이다. 특히 용릉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그리움과 효심을 담아 현재의 화성으로 천장한 뒤 조성한 공간으로, 그의 애뜻한 사부곡(思父曲)이 서린 장소로 평가된다. 이 같은 역사적 공간을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용릉~건릉 숲길’이 오는 30일까지 한시 개방된다. 국가유산청 공능유적본부가 진행하는 ‘세계유산 조선왕릉 숲길 개방’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화성(경기)=김대의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1 | 해질 / 19:57

6월 23일(화) 음력: 5월 9일

수도권 날씨 19~2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6/29, 동두천 17/28, 가평 16/27, 파주 17/28, 서울 19/29, 양평 18/28, 인천 20/29, 수원 19/29, 용인 19/29, 평택 18/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미국무, 콜롬비아 대선 결선서 승리 극우 후보에 축하 인사
▲트럼프 종전합의 후 새 난관 직면... “이란 협상력·마가 진영 반발 등” /사진 뉴시스

▲파키스탄·카타르 “미·이란, 고위급 위원회 신설... 60일 내 최종 합의”
▲이란 외무 “합의 첫 시험대는 레바논... 석유 제재 유예 등 성과”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지하 드론 공장·기지 언론 공개
▲젤렌스키 “신형 드론 사거리 3000km... 러 매일 공격할 것”



외국인도 '단골' 올리브영 세일 관광 콘텐츠로
니



Life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1공장
건설완료
L2



매립지 위 피어난 상생... 지역 미래가치 위해 발맞춘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기초시설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같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환경적 부담과 각종 우려를 함께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환경시설 운영기관에는,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및 ESG(환경·사회·투명) 경영도 이러한 과제와 맥을 같이한다.

공사는 수도권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체계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 환경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임무를 지니고 있다. 이에 더해 지역사회와 상생, 미래세대 지원, 협력기업 동반성장 등 사회적 가치의 창출 영역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것.

올해 상반기 공사가 발표한 주요 사업을 들여다보면 교육과 문화, 주민소통, 기업지원 등 분야가 제각각이다. 그런데 이를 조금만 넓게 보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공통의 방향성을 읽어 낼 수 있다.

◆미래인재육성 등 지역사회 체감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노력은 상당 기간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왔다. 주민지원사업과 지역 사회 환원 활동, 시민개방 프로그램 등을 지



시민들에게 개방된 수도권매립지 내 공간인 인천 서구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벚꽃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소통·인재 육성·동반 성장 등 일회성 지원 넘어 지역가치 만들어

환경·에너지 인재 육성 장학회 설립 20여년간 미래세대 꿈 위해 투자해 대학 협력체계 넓히며 전문인력 양성

순회간담회 열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 수도권매립지 개방...공공자산 활용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열어 휴식 선물

협력기업과 상생... 동반성장 '최우수' 공공기관 추구해야 할 사회가치 펼쳐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가 드림파크야생화단지다.

2002년 설립된 드림파크장학회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학생과 환경·에너지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장학금 수여식까지 포함, 1783명의 학생에게 총 24억 원가량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20여년간 사업이 지속됐다는 점은 단순한 장학사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역사회에 대한 장기적 투자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 공사는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는 청원대·목포대 컨소시엄, 경기대, 인천대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학사업에서 대학 교육과 진로 지원으로 이어지는 인재 육성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주민소통·공간개방·동반성장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사람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노력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

올해는 주변영향지역주민들과순회간담회를 가졌다. 생활폐기물 작매립 금지 시행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기관장이 직접 각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책과 사업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더해 수도권매립지 내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며 지역의 공공 자산으로 활용하는 노력도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다. 과거 연탄재 야적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이 공간은 인천 서부권을 대표하는 녹지·휴식 공간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40만㎡(12만1000평)가 넘는 규모의 야생화단지에는 계절별 꽃단지와 산책로, 숲

길 등이 조성돼 있어 매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공사는 봄철 벚꽃 개방 행사와 가을 국화축제 등 계절별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화축제는 2004년부터 이어져 온 대표 행사로, 지역 주민과 수도권 시민들이 함께 찾는 문화·생태 행사로 성장했다.

올해 진행된 '드림파크 벚꽃길 산책' 역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시민 개방 정책과 공간 활용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과거 환경기초시설의 부속 공간으로 인식되던 곳이 이제는 시민들이 계절의 변화를 즐기고 휴식을 누리는 생활 속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사가 추구하는 상생의 가치는 협력기업과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올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성과공유 확대, 기술 및 판로 지원 등 협력기업과의 상생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지역의 미래 밝히는 투자

이런 사업들은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분야의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보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연결된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미래세대를 지원하고, 협력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

환경시설 운영기관의 역할은 더 이상 폐기물을 처리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데만 안주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미래세대에 투자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역시 중요한 공공적 책무가 되고 있다.

장학사업과 인재 육성, 주민소통, 지역 개방, 동반성장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활동은 결국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투자다. 이러한 노력들은, ESG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



지난 2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홍보관에서 '2026년 드림파크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 1월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메트로 한줄뉴스



▲'3차전 상대' 남아공, 파추카서 담금질... 오늘 몬테레이 입성 예상
▲'3-1 대역전극' 이집트, 한국 피파랭킹 맹추격...3차전에 뒤집힐 가능성은? /사진 뉴시스

▲35도 웃도는 몬테레이 '폭염'...남아공전 '최대 변수'로
▲'닷새 만에 선발 출전' 김하성, 밀워키전 3타수 무안타...시즌 타율 0.081

▲이정후, 마이애미전 안타 없이 볼넷 1개...시즌 타율 0.327
▲중요 보존 의지 강조한 허민 청장... 유네스코와 세계유산 현안 논의